



時計塔

SIGETOP



2011년 1월 15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38권 1호

172-10 45th Avenue, Flushing, NY 11358
snucmaa@yahoo.com / www.snucmaa.org
Tel: (718) 888-2622 Fax: (718) 888-2608

발행인: 鄭仁溶 편집위원: 徐亮 盧在煜
편집인: 金炳哲 李元澤 徐仁錫

자문위원: 盧鎔冕 李熙景
許善行

2011 Annual Convention of SNUCMAA

July 1st(Fri.) ~ 5th(Tues), 2011 Omni Interlocken Resort



Phone: (303) 438-6600 or 1-800-THE-OMNI for room reservation
Fax : (303) 438-7224
Web : omniinterlocken.com

July 1, 2011: Registration
July 1, 2011: Delegating Meeting at 4:00 pm,
July 2, 3 & 4, 2011 : Convention & Daily tour for non-golfer
July 5, 2011 : Departure

35 miles from Denver International Airport
Taxi : Approximately \$70.00
Shuttle : \$27.00 to \$50.00 per person, 4:00 AM to 11:00 PM

Golf Course
The Four Diamond 27-hole Championship Course
Third best course in Rocky Mountain region with striking scenery
and 400 feet of elevation changes.

Off Convention Tour

컨벤션 전후를 즈음하여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콜로라도 관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컨벤션 전에는 여러분의 도착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스케줄이 어렵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총 40분이 넘으면 7월 5일 아침 10시 호텔을 출발하여, 7월 7일 오후 3시에 덴버 공항도착의 2박3일 코스로 일정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비는 \$350(일인당)으로, 호텔 및 모든 식사가 포함되었습니다. 보실곳은 Rocky Mountain including Estes Park, Bear Lake, Grand Gravy Lake, Glenwood Spring(세계 최대 온천 해수풀장), Beaver Creek, Red Pocks, 공군사관학교, 신들의 정원, 애니토우 공원 및 인디언 유적지 등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Denver Lotte Tour (303-434-3588) 또는 동창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희망하시는 분들이 40분이 넘으면 계획대로 추진할까 합니다.

Convention Chair 강창홍 Convention Vice-Chair 이영인 Scientific Program Chair 조세진

2010-2011 대의원회 회의 초록



일시: 2010년 11월 13일(토) 오후 4시

장소 : Glenpointe Marriott Hotel in Teaneck, N.J.

참석자: 노용면(55) 이만택(58) 박호현(58) 채규철(59) 한기현(63) 추재욱(63) 허선행(64) 이명희(66) 최영자(66) 최순채(66) 엄규동(69) 정인용(71) 강창홍(71) 오용호(72) 석창호(72) 문대욱(73) 서인석(73) 이상 17명

Proxy: 김웅식(55) 정구영(57) 김병석(59) 남성희(62) 손영진(62) 조명호(62) 김태웅(63) 김택수(63) 조동준(64) 최준희(64) 조의열(66) 이태석(67) 한영수(67) 이견일(68) 김병오(69) 윤효운(69) 천양곡(69) 이성춘(70) 인정길(70) 조영갑(70) 조세진(71) 김유식(71) 김일영(71) 오동환(71) 백승원(79) 심인보(83) 이상 26명

1. 강창홍 총무 개회 선언 (86명중 17명 참석과 Proxy 26명, 겸직 8명) 지난 대의원회(6/17/2010) 회의록 낭독과 회의록을 만장일치로 통과.

2. 재무 (오용호) 보고: Annual Ball과 Scholarship Revenue를 제외한 일반 경비에 관한 보고가 있었음.

- 재무보고에 관한 여러 동문들의 이견이 있었음: CPA와 상의해서 Audit에 관한 준비가 철저해야 함. 앞으로 1년 예산안을 작성하고, 예산안에 준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됨.

- Web site에 재정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재 바람. (김혜경 사무장이 Website 담당 김성수(65) 동문과 연락하기로 함)

3. 정인용 회장 보고

- 2011년 7월 1일(금)부터 5일(화)까지 콜로라도 Denver에서 있을 Annual Convention에 관하여, 프로그램 설명과 진행 준비에 관한 보고가 있었음.

- Scientific Chair 조세진(71) 동문이 학술 프로그램을 열심히 준비 중이고, Golf를 오전 중에 하는 것에 대한 이유와 Rocky Mountain National Park, 운천 관광에 대해서는 그곳 동문들의 협조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음.

- 12월 중에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의대 동창회와 Convention에 대한 소개 및 감사 초청문제, 특히 장학금 지불을 포함한 Green project에 관한 협조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임.

- 현재 우리 website(www.snucmaa.us)가 있는데도 동창회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고,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함. Website ad Hoc Committee를 만들자는 허선행(64) 동문의 동의와 한기현(63) 동문의 재청이 있었음, 좀 더 긴밀한 관계와 재정지원 문제를 회장이 알아보기로 함.

- 이만택(58)동문으로부터 우리 동창회에 상임 부회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음.

4. 재정위원회 보고 (최순채 위원장): 50% 미만의 회원들이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현 상태로는 동창회비만으로는 동창회 운영이 어려움. 시계탑 발행과 발송 경비로 1년에 약 \$23,000 이상이 지출됨. Annual Ball 등 모든 동창회 행사는 fund raising이 목적인으로, 적자를 내서는 안됨을 강조함.

5. Scholarship 위원회 보고(서인석 위원장): 김태웅(63) 및 송관호(64) 장학금에 대한 설명함. 모든 의대생 장학금의 신청 및 추천은 학생부학장실을 통해 처리하고 있음. 전임 및 현 학생부학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대생 장학금은 이른 봄에 공고하여 결정할 예정임(미국내 장학생은 현재대로 가을에 공고, 결정할 것임).

- 서울의대생 10명(서울의대 matching fund에서 5명), 미국에서 8명, 총18명에게 \$2,000~2,500씩 수여함.

6. Fund Raising 위원회 보고 (추재욱 위원장): 역력이 있는 동문들은 자발적으로 동창회 운영, 활동을 위해 기부해주시기를 부탁함.

7. Fund Management 위원회 보고(이명희 위원장): \$10,000이 장학기금으로 지급 되었고, balance에는 변화가 없음.

8. Research & Fellowship 위원회 보고(최영자 위원장): Mayo Clinic에서 Hepatic Transplant 연구에 큰 업적을 쌓고 있는 김웅(86) 동문을 함춘의학상에 추천하였음.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9. Publication 위원회 (김병석 위원장 서면보고): 지난 9월 17일에 시계탑 편집위원 모임이 있었으며 제출된 원고에 대한 편집이 있었고, 좋은 원고의 부족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음. 여러 동문들의 시계탑에 관한 발언이 있었고, 제출된 원고에 대해서는 항상 응답을 하고 있다는 편집위원들의 답변이 있었음.

9. By Laws 위원회 보고 (노용면 위원장): 9월 18일 이사회 모임에서 Charity Committee를 Ad Hoc에서 상임위원회로 만들자는 최영자(66) 동문의 제안을 by-laws 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부결시켰음. 계속 Ad Hoc 위원회로 남아 있고, 활동 결과에 따라 추후에 다시 결정 할 수 있음.

10. Green Project 위원회(이영인위원장: 서인석 대리보고): 서울 의대 학생 29명이 하계 수련으로 미국에 와서 동문들의 주선으로 4~6주동안 미국 의학과 실습을 체험 할 수 있었음. 학생 대표 김경수의 글이 시계탑에 게재 되었음. 앞으로 미주 동창회의 존속을 위해서는 이들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support 가 필요함. 이곳에서 수련(Resident)을 원하는 후배들도 많이 있으나, 정착 할 수 있을 때까지, 동문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특히 수련의가 될 수 있도록 학교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며



동창회장 정인용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그동안 여러 선배님들, 또 동문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직접 뵈고 인사를 드려야 할 줄은 알지만, 이렇게 지면을 빌려 인사를 드려 죄송하고, 너그려이 양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벌써 회장 임기가 한 일도 없이 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Golf 대회와, Annual Ball을 한것 외에는 별다른 할일도 없이 시간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행사에 여러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2월 중순에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4년 만에 들른 서울은 그사이에 또 엄청나게 바뀌어 있었고, 모두들 바쁘시고, 거리에 넘쳐나는 사람들, 백화점들은 저와 제 집사람의 정신을 속 빼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서울에 가기 전에 동창회에 연락하여, 강신호 명예회장님, 이길녀 명예회장님, 박용현 회장님, 의대 학장님과 병원장님께 인사를 드리겠다고 부탁을 드렸더니, 박용현 회장님의 친절하신 배려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점심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큰 영광으로 알고, 고마운 마음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여러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은, 첫 번째가 미주동창회의 회장이 너무 자주 바뀌어 미주동창회의 업무와 계획과 또한 서울 총동창회와의 협력관계가 지속성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서울의 총동창회와 미주동창회의 관계정립을 박용현 동창회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점은 다음 3월 우리 이사회에서 상의드리려 합니다.

저는 미주동창회의 지역적인 특성과 내려오는 전통관계로, 회장임기를 2년 내지 3년으로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렵고, 중요한 업무들, 다시 말하면, Green Project, 시계탑 발간, Scholarship 및 Fund Management 같은 Committee들은 지역별로 책임자를 선정해서 될 수 있으면 바꾸지 않고, 또 동창회 사무실의 김혜경 사무장과 잘 협조하면, 별 문제없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12월 14일에는,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의대 동창회 연례만찬에 참석하였습니다. 많은 동문들께서 참석하시어 성황을 이루어 주셨고,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6시에 시작하여 베토벤에 관해 45분간 강의가 있었고, 40여 분간은 여러분들의 인사말씀이 있었고 (제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장학금 및 유공자의 시상식이 있었고, 함춘학술상을 수상하신 미주동문이신 임종식 선배님의 수상소감의 말씀도 있었고, 복권 추천하고, 몇 분의 노래를 듣고, 9시에 끝나서 만찬이 끝났습니다. 아쉬운 점은 오랜만에 만나시는 동문들께서 자유로이 서로 얘기를 나눌 시간인 Cocktail Hour가 없었다는 것과, 동문들의 배우자께서 참석을 안 하시는 것이 여기와 조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앞으로는 더욱 서울 총동창회와의 대화 및 협조를 돈독히 하여, 노쇠화 되어가는 미주동창회의 활력을 서울에서 나오시는 후배들의 후원을 통해 얻어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저희는 오는 3월에 이사회를 열고, 7월 2, 3, 4일에 Colorado Denver에서 열리는 Summer Convention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기 좋고, 시원한 Colorado에서 여러분과 함께 즐기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특히 조세진 동문께서 정성을 다해 준비를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컨벤션 전후를 즈음하여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콜로라도 관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컨벤션 전에는 여러분의 도착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스케줄이 어렵고, 희망하시는분들이 총 40분이 넘으면 7월 5일 아침 10시 호텔을 출발하여, 7월 7일 오후 3시에 덴버 공항도착의 2박3일 코스로 일정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비는 \$350(일인당)으로, 호텔 및 모든 식사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보실곳은 Rocky Mountain including Estes Park, Bear Lake, Grand Gravy Lake, Glenwood Spring(세계 최대 온천 해수풀장), Beaver Creek, Red Pocks, 공군사관학교, 신들의 정원, 애니토우 공원 및 인디언 유적지 등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Denver Lotte Tour (303-434-3588) 또는 동창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희망하시는 분들이 40분이 넘으면 계획대로 추진할까 합니다.

2011년 한해에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실 바라오며, 새해에는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이 넘치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길 기원하며, 여러 동문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 정 인용드립니다

- 에 계신 동문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함.
- 이날 한국에서 일반의과를 마치고 2006년에 미국에 왔으며, 현재 미국에서 Resident자리를 구하고 있는 김영철(89년 졸) 동문에 대한 소개가 있었음.
- 11. Silver Project 위원회(한기현 위원장) : 아시아나 여행사를 이용하는 다뉴브강 Cruise는 항가리의 강 오염으로 취소되고, Alps 여행으로 변경되었음. 내년 5월 13일부터 22일까지이고 많은 참가를 바람.
- 12. Charity 위원회(최영자 위원장): 활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금년에 \$2,000의 기증이 있었고, 앞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로 존속되면 좋겠음. 이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나, by Laws 위원회 추천에 따라, 우선은 활동을 좀 더 지켜 본 후에 다시 결정하기로 함.
- 사진 촬영 후 5시30분에 폐회를 선언함. 제2차 대의원회는 7월 1일 Denver에서 가질 예정임. - 강창홍 총무(73, 대뉴욕)

회비, 헌금하신 동문 명단

2011년 1월 15일 현재

회비 납부하신 동문 명단

- 1948 한용현 오동렬
- 1950 주 일 한원봉 나수섭
- 1952 전병구 김호연 김정준 김은태
- 1954 김갑균
- 1956 조동립 도상탁 주창준 김신형 박상기 신명수 서상철 유호준
- 1957 정진목 한성택 김양호 김용진 이민자 이동성 유상환 임종원 임종식 윤 찬
- 1958 한영수 김부근 김기태 김해암 김백년 김수산 김시한 김순옥 김석희 김윤범
이장섭 이동목 이종용 이종국 최정희 이만택 이상익 이운순 임영신 배영섭
박호현 이상설 유치열 신상균
- 1959 최종진 최혜숙 최용천 정병욱 정태진 한성업 한달수 임낙중 강재룡 강상진
김병석 김교안 김은섭 김용덕 이교락 이원호 방석운 나길진 서경화 신한수
신영철
- 1960 조재동 김인환 한성수 김택경 김완주 김영환 권기홍 이효빈 이종석 이덕송
이광준 이상일 이순환 임종원 오신중 박춘명 박형순 박정우 박명근 박병돈
임필순 염극용
- 1961 안창현 장성환 장태환 조은순 최지원 최공창 최용성 정철용 황현상 강창욱
강세부 김영철 김영기 김유홍 계훈택 이동해 이한수 이회백 이희경 이재두
이재승 이준우 박준환 박승균 손기용 서휘열 양명교
- 1962 장병호 정 태 구정용 한상호 조명호 정정수 김한중 김호균 김석식 권익현
이기범 이상복 이상무 이석우 이용길 민경환 문상규 남성희 오대요 박종승
박찬형 박진수 박종건 이경욱 이상원 이영웅 손영진 송영두
- 1963 장세곤 조열하 조한원 추재욱 신경호 김태형 한광수 강영호 김계운 김택수
김충열 김현학 김현철 김정일 김갑중 김명준 김승태 김태웅 고영희 권영재
이재명 이종두 이종민 이기환 이능석 이병준 이승현 이범세 마동일 박세록
박용준 임춘수 신영규 송용덕 왕규현 양찬기 윤진수 윤영섭 윤영욱 선우건영
- 1964 안연승 방효준 차용만 조창언 조성준 최준희 한성학 한태진 홍선경 허선행
전희택 조동준 정유석 강창만 김태환 김용두 김용국 이재풍 이홍표 이정은
이길수 이광신 이용만 유광현 임대목 박세준 라찬국 이주영 이종오 이유찬
유창남 유효명 신두식 송원길 양운택 윤홍기 선우세현
- 1965 채무원 채도경 지영환 조성구 최동욱 전영균 한재은 황규정 강길원 김대언
구경희 이범석 이종희 이한중 이화성 이광선 민경탁 박수안 이재진 이정의
서좌일 서홍석 윤원길
- 1966 장한교 조관상 최순채 최영자 정양수 허서룡 조의열 김충규 김의신 김우신
김용재 권일성 이종현 이병희 이성근 이영일 민발식 남궁승

- 1967 지일성 최창식 최무웅 최승웅 한영수 김동수 김성철 김태웅 이준식 이근웅
이민우 이소희 박정일 유 달 육태식
- 1968 안금환 안세현 차재철 최 철 한민원 홍광신 김 철 김주평 김경인 김영남
이건일 임공세 문광재 박정식 노영일 서진석 서관우 송창호 황훈규 유우영
- 1969 안병일 조중행 최종진 천양곡 김병오 김병오 김창남 김중권 김홍서 이충호
임용규 임안무 신영찬 송기인 송용재 서 랑 엄규동 윤효윤
- 1970 방준재 조영갑 최원일 조남현 이성춘 문성길 박홍식 노승국 여준구 이정길
유철희
- 1971 배성호 장 철 조세진 최영철 황동하 강창홍 강태수 강유구 김창구 김 훈
김재홍 김유식 김성환 고기영 이희영 이종일 이남수 이원택 오동환 오상현
노재홍 서정자 서상현
- 1972 오용호 장병호 최인섭 정수만 김재석 이기진 이신재 박병영
- 1973 방병기 나두섭 이계석 민인기 문대욱 박진섭 임준형 서인석 심완섭
- 1974 김웅진 구재훈 권철수
- 1975 전경배 김자역 김원정 박인영
- 1976 유영걸
- 1977 강준희 박일우
- 1978 김동수
- 1979 최대용
- 1983 심인보
- 1989 김영철 오무연

Donation

노용면(55) 500 김윤범(58) 100 신상균(58) 100 정태진(59) 25 권기홍(60)1,000
 박명근(60) 50 강창욱(61) 100 이회백(61) 50 황현상(61) 75 박종승(62) 100
 이기범(62) 100 조명호(62) 75 왕규현(63) 200 송원길(64) 100 김주평(68) 100
 이건일(68) 100 여준구(70) 50 서정자(71) 75 오용호(72) 200 문대욱(73)1,000
 박진섭(73) 125 김동수(78) 100 Total \$ 4,325.

Green Project Fund

박종승(62) 50 권일성(66) 75 민발식(66) 100 차재철(68) 75 윤효윤(69) 125
 강창홍(71) 100 배성호(71) 100 조세진(71) 100 서인석(73) 100 Total \$ 825

Charity Fund

서상철(56) 25 강상진(59) 200 박종승(62) 50 최영자(66) 200 조세진(71) 75
 Total \$ 550

Convention Donation

박준환(61) 100 김한중(62) 200 박종승(62) 50 허선행(64) 200 윤효윤(69) 500
 이충호(69) 500 강창홍(71) 300 김성환(71) 125 김창구(71) 300 이원택(71) 75
 조세진(71) 700 서인석(73) 100 Total \$ 3,150

2010 Annual Ball

이규용(41) 200 이재승(61)1,000 남성희(62) 125 추재욱(63)1,000 한기현(63) 150
 조성준(64) 200 권정덕(64) 200 유창남(64) 300 한영수(67) 200 이충호(69) 250
 정인용(71)1,000 강창홍(71) 250 정희현(72) 125 김연철(72) 200 김치갑(79) 250
 오무연(89) 10 63 Class 300 69 Class 500 Edward Kang 500 초청 20
 Raffle 380 Hamchoon1,000 Total \$ 9,140

동문동정 및 지부소식

생신을 축하합니다

지난 11월 14일, 이규용(41) 선배님께서 94세 생신을 맞으셨다. 아직 건강이 좋으셔서 동창회 연말파티에도 나오셨다. 부디 계속해서 오랫동안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노용면)

추재욱(63) 동문 - 지난 12월 4일 추동문의 장남 David Lee Chu(변호사)군이 신부 Esther Lee양을 맞아 3백여 하객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다.

시카고지부 연말파티겸 총회 개최

시카고 지부(회장 천양곡)는 지난 12월 11일에 Plaza Hotel에서 약 45명의 동문부부가 모인 가운데 연말 파티겸 총회를 가졌다.

회장 인사, 재무 보고, 년중 행사보고 그리고 2011년도 회장인 안창현(61) 동문의 인사말이 있었다. 곧 이어 여흥순서는 시카고에서 잘 알려진 DJ 주도하에 만담, 노래, 춤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한 해를 마무리했다. 때마침 미주동창회 본부에서 보내준 모교동창회 달력도 참석한 동문들에게 배부했다.



김태웅(63)동문 장학금 전달식

김태웅(63) 장학금 전달식을 거행 하였습니다.

장학금을 수여한 두 학생 (본과3 이현정, 본과4 노현정)들 모두 선배님의 뜻을 잘 받들어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모교 후배를 위한 장학금 사업에 수고하시는 선배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최민호 드림.



뇌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경줄기세포-자살유전자 치료법

김 승 업(60, 캐나다)



내가 의대를 1960년에 졸업하고 1961-65년에 Kyoto 대학 대학원에서 신경세포배양 으로 논문을 3편 쓰고 학위를 받았다. 1966년에 뉴욕의 Columbia University P&S에서 Post-Doc Fellow로 연구생활을 시작하여 북미에서 44년이 되었다. 그간 450편의 학술논문을 쓰고 그 citation index도 5000이 넘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격언이 있는데 그 오랜 시간과 무한한 노력 끝에 인류 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 남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러한 나에게 최근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이곳에 적어 보기로 한다.

내가 1998년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대학 연구실에서 개발한 인간 신경줄기세포 human neural stem cell line에 자살 유전자 suicide gene를 탑재하고 뇌종양 glioblastoma 환자에서 이식하는 임상치료시험 clinical trial이 6월 7일 미국 FDA의 승인을 받고 LA 근교 City of Hope Medical Center에서 시작 되었다. 이 치료법은 종양세포만 선택적으로 인식하고 추적하는 자살 유전자 suicide gene (E. Coli cytosine deaminase)를 탑재한 신경줄기세포를 환자 뇌에 이식하고 줄기세포가 종양 덩어리 속에 이동하면 전구약제 prodrug (5-fluorocytosine)을 투여하여 줄기세포의 자살유전자가 이 전구약제를 강력한 항암제 (5-fluorouracil)로 전환하고 줄기세포는 종양세포와 동반 자살함으로써 획기적인 치료효과를 거두는 새로운 방식의 유전자 치료 기술이다.

이번 미국 FDA의 승인을 통해 연구팀은 난치성 뇌종양인 신경교세포종(glioblastoma)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Phase I-II clinical trial을 시작한다. 그 첫 환자에 대한 news story를 2010년 11월 11일 미국 CBS Evening News의 Katie Couric이 보도 하였다. 1998년 유전자치료에 사용되는 인간 신경줄기세포주 human neural stem cell line가 개발된 뒤 이 세포주를 사용하여 뇌졸중, 파킨슨병, 헌팅턴병, 루게릭병, 척수손상, 뇌종양 의 동물모델에서 우수한 치료효과를 거두어 이제 뇌종양 환자들에게 최초로 직접 치료효과를 보게 되었다. 이러한 뇌신경 질환의 전임상 실험의 성공은 모교 서울대학 병원 신경과 노재규, 윤병우, 김만호, 주건 교수, 신경외과 김승기, 왕규창 교수 그리고 삼성병원의 남도현 교수(서울의대 후배)와 수행한 공동연구에 의한 것이다.

인간 신경줄기세포주 human neural stem cell의 뇌이식을 주제로 42편의 SCI논문이 발표 되었다. 한국에서는 중앙대병원 뇌신경센터의 권정택 교수 주관으로 뇌종양 유전자치료의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다. 동반자살 유전자를 이용한 암 치료 연구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악성 뇌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시험은 미국에서도 처음이다. 특히 이번 시험 대상인 악성 신경교세포종의 경우 1차 수술 후 평균 생존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새 치료법의 효과를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 줄기세포-자살유전자 치료법은 유방암 뇌전이 breast cancer brain metastasis, 전립선암 prostate cancer, 유방암 breast cancer, 난소암 ovarian cancer의 동물 모델 에서도 양호한 치료효과를 보인다 있다.

24회 (1970년 졸업) 졸업 40주년 재상봉 모임은 제 20차 서울의대 동창의 날로 정하여 10월 7일 모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미국에서 14쌍 부부를 비롯하여 약 60여명이 강당을 가득 메웠고, 그동안 이미 작고한 친구들 외에도 바쁜 스케줄로 인한 최진훈군을 비롯하여 여럿이 불참했으나, 한국에서 김호균 회장, 홍성화 총무와 미국의 최원일 동문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김광현 동문이 일일이 전화로 확인을 해서 많은 동창이 참가할 수 있었다. 참석지 못한 장극기, 조남현 동기의 수표까지 합쳐 서울의대 발전기금과 동창회 발전기금의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하였다.

너무나도 변한 모국의 모습과 울창한 나무로 덮였던 한촌원에 여러 새 건물들이 들어서고, 구석구석 주차된 차들과 구름 같은 환자와 가족들을 비집고 오랜만의 만남이 되었다.

졸업 후 4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은 "나 종현이야" 하고 스스로 소개를 하면,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 라고 인사치레를 하면서 반백의 노안을 드러다 보고 옛 모습을 기억을 되살리려 노력을 하였다. 하나둘 강당의 자리를 차지하고 국민의례 후 임정기 학

장님, 정희원 병원장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 박용현 동창회장의 반가운 격려사를 듣고, 김호균 동창회장과 재미동창 대표 최원일군의 인사가 있는 후, "자랑스러운 서울의대인" 시상으로 국내 이흥재, 국외 홍건 동문이 각각 상패를 받고, 학교 발전기금 및 동창회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기념품을 전달하고 받고, 대학 현황과 병원 안내를 동영상으로 보면서 졸업 40년 후의 놀라운 모교의 발전현황을 접하게 되었다. 특별히 라오스 국립의과대학에 대한 이종욱 서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은 옛날 50년 전 우리 교수님들이 미네소타 대학에서 배웠던 프로그램을 다른 나라에 전수하여 주는 뜻 깊은 일을 한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다.

기초화 교실 중간에 위치한 정원에 우리 동기들이 졸업 25주년 기념으로 증정하여 설치한 분수대를 감회 깊게 둘러보고 현관 앞에서 부인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동창회관 및 의대 건물과 병원을 김한석 교수의 안내로 둘러보고 시계탑 앞에서 다시 기념 촬영 그리고 박물관의 역사적 유물을 둘러보고 나서 가든뷰 식당에서 너무나도 좁아 보이는 모교와 병원 캠퍼스를 내려다보면서 오찬을 들며, 학장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 지난번 미주 동창회장을 역임한 이성춘 동문의 "건배"에 맞추어 "하자"로 응답하고 간단 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를 위해 차창일 동문이 준비한 동영상으로 의과대학 시절, 군의관 때의 사진들 그리고 지난 40년간의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즐겼다. 식사가 끝난 후 길 건너 창경궁을 둘러보고 학창시절 벚꽃이 만개하면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음에 아랑곳없이 공부에 열중했던 기억을 되살렸다. 아침에 우리들을 모셔다준 버스를 타고 청계천을 방문 때마침 '청계천축제 2010'과 함께 '설치미술-오색찬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는 남산 도로를 돌아 장충동에 위치한 앰배서더 호텔로 돌아와 6시부터 간단한 칵테일로 시작하여 88명이 참가한 디너파티에 맛있는 음식을 들면서, 미

국에서 한 병씩 가지고 간 양주외에도 이상용 동문이 증정한 짜집한 양주로 회포를 풀었다. 이번 모임은 비록 84명밖에 졸업하지 못한 동기들이었으나, 처음으로 국내외 동문들이 제일 많은 참가자를 기록을 세웠다. 정겨운 트리오 앙상블과 소프라노, 테너의 귀에 익은 명가곡을 들으면서 대화를 즐기고 이석규동문의 플루트독

'산해불이 회타운'에서 삼다리가 부러지게 심심한 회가 나오고 양주는 'blue'가 좋으면서 또 한 잔을 권하기도 했다. 멕시코를 갔다가 다리를 빼어 휠체어를 타고 온 이석규 부인이 침을 맞고 지팡이 없이 걸어 들어와 박수를 받았다. 드디어 우리가 하루 묵을 마레몬스 호텔은 모든 객실에서 동해 바다의 일출을 볼 수 있다고 하

계곡을 따라 30 km정도의 계곡을 감상하면서, 인공으로 만든 113m의 백선 폭포를 보고, 예전에 강릉 사단에 근무할 때 정선 대대에 들르기 위해 험한 산골길을 운전해 왔던 여준군 대위의 감회 깊은 소감을 들었고, 숙취에 좋다는 '헛개비 나무'를 추천하는 내과 의사 김병국 동문이 임상경험을 이야기 했다. 16개 탄광이 한창일 때부터 있었다는 주말 상설시장에는 여러 가게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고, 점병을 안주로 '콘드레 만드레' 한 잔을 기울이고 예전의대시절 정선에 무의촌 진료를 왔던 이흥재 동문의 옛날이야기를 들었다. '삼다리'를 건너 '아라리 촌 민속마을'을 둘러보고, 영월에 도착하여 '욕실을 버리는 집' (rest room)을 둘러 비극의 어린 단종의 슬픈 이야기를 간직한 '청령포'에서 나룻배를 건너 '단종어소'와 600년짜리 '관음송'을 보았다. 제천으로 향하여 '대보령가'에서 약초밭 상으로 점심을 즐기고, 엄청난 자동차 행렬에 막혀 약속시간 보다 훨씬 늦게야 서초동 '민속관'에 도착하였다. 강원여행을 못한 친구들이 걱정하다가 우리들을 반갑게 맞이하였고, 53명이 용기종기 앉아

24회 졸업 40주년 재상봉 모임

홍 건(70, 시카고)



주 등 가라오케와 함께 짹짹하게나마 소감들을 나누고 10시에 아쉬운 작별을 고했다.

다음날 8일에 42명 (부부동반 18 쌍 그리고 6명의 싱글) 이 두 대의 버스에 분승하여 하나여행사의 특별한 배려로 우대용 28석짜리 편안한 좌석에 앉아 강원일주의 여행을 떠났다.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아 시간 가는 것도 모른 채, 가평 휴게소, 청정 남근 조각공원 등을 둘러보고 A 버스의 책임자 홍성도 동문의 재치 있는 사회로 "아내를 무슨 꽃으로 비유할까?" 하는 소개로 남의 집 사정들을 듣기도 했다. 뽀빠이 이상용의 만담은 해외에서 살던 우리들에게는 좀 낯설으나 색다른 맛이 있었고, 빅스커피에 비치는 남진 가수의 열창은 지나간 학창시절을 회고하기에 적격이었다. 고성 울산 바위 앞에 도착하니 때 아닌 구름과 가랑비가 우리의 앞을 가로 막았으나 웅장한 산줄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점심 때를 맞추어 도착한 '이목리 막국수집'에서 시원한 동침이 국물과 총각김치에 곁들여 감자전을 안주로 시원한 막걸리로 목을 축이고, 곧 설악산으로 들어갔다. 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버스에 준비된 '일회용 우산'을 쓰고 만물상 앞의 권금성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으나 안개와 구름이 앞을 가로 막고 근처의 산사에서 들려오는 목탁소리를 듣고 내려와서 신홍사에 들어가 거닐며 학교 때 등산하러 왔던 기억들을 찾으려 해도 너무나 변한 모습이 신기하였다. 조금 이르기는 했으나 해발 800미터 이상과 양지바른 남쪽에는 벌써 단풍이 고개를 들고 빗속에서 반겨 주었다. 버스는 양양의 낙산사로 옮겨 의상대와 흥련암을 배경으로 사진들을 찍고 '근심을 더는 곳'(rest room)에서 잠시 쉬고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절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짧은 지식으로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10여명이 길을 잘못 들어서 핸드폰으로 구조를 청하여 버스가 가서 찾아오는 해프닝도 있었다. 양양의 유명한 횡집 골목에서

여 흥분하였으나, 구름으로 정작 일출은 보지 못하였다. 저녁 늦게까지 가라오케 방에서 홍성도 군의 사회로, 이흥재 동문이 권하는 폭탄주 그리고 마이크를 잡으면 관중을 때려시키는 Mrs. 이성춘의 열창은 시간 가는 줄 몰랐고 그래도 옛날 생각에 끈질긴 친구들은 늦게까지 남아 마이트를 즐기었다.

9일 아침 맛있는 호텔 뷔페 조식을 한 후 강릉에 도착하여 유철희 동문이 6년 동안 귀국하여 근무하였던 아산 중앙 병원을 방문하여 놀라운 고정주용 회장의 "우리 사회의 가장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는 취지아래 건립된 병원에서 그 꿈이 실제로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돌아보았다. 한양의 광화문에서 정동에 위치한다는 정동진에 도착하여 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지를 둘러보고 59킬로의 추암까지 바다를 마주보고 앉아 동해선 기차 차창으로 지나가는 바다풍경과 어촌의 모습은 마치 그림의 한복의 연속이었다. 추암 촛대바위를 보고 다시 강릉에 도착하여 교육계에 봉사하신 선친의 뜻을 받들어 서울의대 출신으로 고향인 강릉에 일찍 돌아와 개업하여 인술을 펴온 이상용 동문의 부인이 안내를 하여, 탤런트 배용준이 제일로 꼽는다는 '서지마을'을 찾아가 정통 한식 점심을 먹고, 교산 허균과 누빈 허난설헌이 자라난 공원을 둘러보고 달이 뜨면 다섯 개 (하늘, 동해바다, 경포호수, 술잔 안에 그리고 님의 눈동자에)의 멋이 있다는 정서어린 곳을 뒤로하고, 하루에 300명 이상의 손님을 대접하기도 했다는 '선교장'을 방문하고, '오죽헌'을 잠시 둘러보고 용평에 도착 '고향 이야기'에서 다시 나타난 이상용 동문이 저녁을 쏘아 술잔을 기울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김 진국 동문의 강릉에서의 삶을 들었고, 은퇴하면 모국에 나가 봉사하고 싶다는 이석규 동문의 소원도 들었다. 대관령 리조트 타운에 있는 알펜시아 인터컨티넨탈 리조트에 마지막 밤을 지내게 되었다. 10일 뷔페식의 조식을 들은 후 수항

서, 이미 타계한 동창들을 기념 하는 묵념으로 엄숙히 시작하여 김호균 회장의 인사, 최원일 대미 대표의 답사로 다음 5년을 기다리지 말고 어디서 언제 모일지는 차후로 미루고 일단 다시 만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이번 동창회에 참석하기 전 북한에 의료 선교를 다녀온 유철희 동문이 가져온 '북한소주'가 양주보다 더 인기였고, 헤어지기 섭섭한 마음을 달래며 발길을 거두어야 했다.

11일 아침 미국에서 같이 간 최원일, 김광현, 유종현, 한경석, 홍건 부부와, Mrs. 김형달과 딸 Christine 6가정은 동해안 일주로는 성이 가지지 않아 같이 일본여행을 덤으로 가기로 준비했다. 인천공항 근처에서 하루를 자고 공항에 나가보니 우리만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37명이 단체로 가는 데 합류하게 된 것을 알았을 때는 다소 불쾌했으나 그냥 대세를 따라 움직이기로 하고 오후에 출발, 오사카 근처 간사이공항에 도착, 워싱턴 호텔에 하루를 묵게 되었다. 우리 안내자가 특별히 고려하여 가는 곳마다 12자리를 별도로 지정해준 했고 우리들끼리 대화를 충분히 나눌 수 있었다. 스시로 저녁을 들고 근처에 있는 링크 프리미엄 outlet에 가서 쇼핑을 잠시 할 수 있었다.

1998년 2달밖에 살수 없다는 절망적인 암으로 진단을 받고 16번 이상 대수술을 받아 기적적으로 살아나 우리와 같이 일본여행을 하게 된 김광현 동기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 그 자체였다. 우리와 같이 여행하는 중에는 신혼부부도 있었고 연세 많은 분들도 있었는데, 모두 시간을 잘 지키고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이 없어서 편한 여행을 했다.

12일 조반을 들자마자 오사카성의 '천수각'에 올라가 시내를 내려다보았고, 교토에 가서 깎아지른 절벽위에 세운 '청수사'를 방문하고, '교토산조' 식당에서 스시와 우동으로 점심을 먹고, 연못위에 세운 '킨카쿠 로구온지절'을 방문하고, 이세시의 토바항구에 도착하여 이세완 ferry(다음면에 계속)

졸업 50주년 기념식이구나! 젊음과 끝없는 자부심으로 1954년 서울의대 예과에 입학 가교사에서 시작한 의예과 2년 본과 4년. 벌써 강산이 다섯 번이나 변한 50년이 지났다니! 익숙하지 않은 라틴어 강의, 해부학 실습, 어려웠던 그 많은 시험들, 재시험의 고통 등 주마등처럼 스쳐 가는 것이 어찌 나만의 생각이었을까.

지난 2010년 10월 11일부터 4일간 한국에서 있었던 졸업 50주년 행사는 한국동기회의 철저한 준비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여러 동기들과 주최 측으로 인해 잊을 수 없을 성공적인 모임으로 끝났다.

의대강당에서의 첫 재회를 갖고 강당에서 회장 및 동창회장의 환영을 받고 우리들이 마련한 동창회기금 및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한국과 미주 동기회 대표의 인사말씀이 있었다. 이어 맛있는 점심을 대접받고 기념촬영을 하고는 정든 모교를 떠났다. 언제 다시 이 모교를 찾을 날이 있을까? 이 건물이 몇 년이나 더 이 모습으로 서있을지? 모두들 가슴에 스치는 50년 전의 학창시절을 회상하며 감회 어린 가슴을 안고 버스에 올랐다. 4대의 버스에 편승한 우리들은 이규환 동기의 병원인 의왕시의 계요 병원을 방문 하였다. 정신과 병동 800, 노인 병실 200 합계 1000 병실의 대규모 현대식 병원, 그간의 이규환 동기의 노력과 경영능력을 잘 짐작하게 하는 일면 우리 동기의 큰 자랑이기도 한 병원 풍경이었다.

저녁에는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주근원, 원이혁, 홍창이, 배병주 선생님을 모시고 가족을 포함한 140여명이 모여서 성대한 만찬과 여흥으로 그간 못다한 환담과 친교를 나누느라 잔을 들고 이리저리 장소를 돌며 안부를 묻고 지난날의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음꽃이 피어 장내는 떠들석 화기애애하였다. 병중으로 몸이 불편한 한국 동기들도 기어올라 참석해 언제 다시 또 만날지 모를 친구들을 보고자 모습을 보여 더욱 감동적인 해후를 하였다.

이튿날 아침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버스로 문경 새재에 들어서 정상에 세워진 조령 관문을 보고 KBS 드라마 왕건의 촬영지의 왕궁과 옛 기와집

및 초가들을 구경하고 간단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 듣고 기념 촬영 후 점심을 먹고 부산의 해운대로 향하였다.

해운대 비취호텔에서는 만찬 및 여흥을 갖고 편안한 복장으로 서로 가슴을 열고 허물없이 노래와 유머를 즐기며 늦게까지 여유롭게 하루를 즐기며 해변을 거닐었다. 해운대의 모습도 큰 도시로 변했고 호텔의 모습도

식으로 잘 정비된 도로와 건물들이 팍 들어차서 옛날의 소도시였던 창원의 모습은 간데없고 낯설지만 한 남의 땅에 온 듯 한 기분이었다. 점심은 내부 장식 및 설비가 훌륭한 넓은 식당에서 거나하게 잘 들고는 배를 두드리며 몇 장씩 기념 촬영을 하고 이어서 버스로 거제도도 달렸다.

거제도는 제주도 다음가는 큰 섬인

호텔)까지 있어 우리 일행을 반겨주었다. 맛있는 저녁식사 후 신나는 여흥을 즐겼다. 동기생들을 한 사람씩 소개하고 단체로 노래도 하고 유머도 하는 등 오랜만에 마음 놓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 새벽에는 신선한 갯바람을 맞으며 호텔 주위 모래사장을 거닐기도 하고 아름다운 소향구의 풍경에 취해 꿈을 꾸듯 향수에 젖었다.

14일은 아침식사 후 거대한 삼성중공업을 시찰하기 위해 통영으로 와서 바로 전망대로 향했다.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통영 앞 바다는 아기자기한 섬들이 조롱조롱 열매가 맺힌 듯 어우러져 동양의 나폴리라 해도 손색이 없을 듯 아름다웠다. 점심은 통영 앞 바닷가의 멋진 식당에서 신선한 회와 생선구이를 즐기며 맛있는 식사를 하고 귀경길에 올라 진주를 거쳐 대전에 이르는 새 고속도로를 타고 달려왔다.

14일 오후 6시경 모두들 건강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귀경하여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동창회 모임 이었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 칭송하며 열린 가슴으로 열싸안고 굳게 손을 잡으며 작별을 고했다.

처음 만난 날에는 50년 만에 혹은 40년 만에 보는 동기들도 있어 얼굴을 알아 볼 수 없어 '누군가?' 서로 물어서 인사를 해야 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미주 동기들은 무엇보다도 고국의 발전상에 놀라고 감격스러워 했으며, 그 중에서도 별거숭이였던 고국산천과 빨간 흙더미 산들이 어느 곳을 가나 나무가 무성하고 푸르른 산을 보니 너무나 마음이 풍요롭고 고국의 품이 편안해 보였고 또한 높아진 시민의식에 마음 뿌듯하고 자랑스러워하였다.

우리들의 나이에는 다소 무리한 일정이었지만 그래도 한 사람도 불평이나 사고 없이 여정을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협조하고 양보하는 아름다운 우정의 발로가 아닌가 한다. 오늘의 우리 뒀을 감사하며 우정의 기쁨을 배가하며 추억에 남을 만남을 주심을 감사드린다.

잘 가시요 ~ 잘 있으시오 ~ 서로의 손을 굳게 잡으며, 아쉬운 작별을 고했다.

14회 졸업 50주년 기념행사에 다녀와서

임종원(60, 오하이오)



5성급 호텔에 조금도 손색이 없고 객실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밤 풍경과 새벽의 바닷가 풍경은 일미였으며, 아침 일찍 모래사장을 거닐 때의 감각, 멀리 보이는 수평선은 가슴이 뭉클하고 감상적이었으며 특히 우리 미주동기들에게는 여러 가지의 아련한 추억, 낭만 그리고 자부심 등이 모두 겹쳐진 듯 한 감정을 갖게 했다.

13일은 아침일찍 산보 삼아 조금 걸어서 가까이에 있는 2005년에 건조된 APEC 하우스가 있는 동백섬 누리마루를 구경하고 기념 촬영한 후 8시 30분경 부산시내 용두산 공원을 관람하고 6.25 피난시절의 애환이 서린 40계단도 돌아보며 기념촬영도 하였다. 용두산에서 내려다보는 부산항구의 전경은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현대식 도시이데 그래도 옛적의 영도다리는 신축된 새 다리 옆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이어서 창원공업단지로 갔는데 현대

데 버스에 앉은 채로 바다 위를 가로질러 다리를 건너다니 신기하기도하고 발달된 거제도의 모습에서 그 옛날 포로수용소 시절의 거제도는 간데없이 사라지고 푸르고 잘 정돈된 아름다운 섬이 되어 신기하고 놀라웠다. 거제도에 도착해서는 곳 바로 유람선을 타고 이웃의 소매물도를 구경하였는데 갈매기 떼가 날아들어 먹이를 주며 어리둥절처럼 웃고 즐거워하였다. 매물도는 깨끗하고 오랫동안 풍랑과 파도에 씻겨서 조각상으로 파여진 모습과 구멍 뚫린 바위며 바위 위에서 뿌리를 내리고 파릇파릇 자라고 있는 소나무들을 보고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 생명력에 더욱 감탄하였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살펴본 거제도는 말끔히 단장된 바닷가 모래사장이며 여기저기 소나무와 수풀이 우거진 모습이 평화롭고 아늑하였으며 거기에다 깨끗한 현대식 호텔(씨 팰리스

<전면에서 계속> boat를 타고 아츠미항구에 도착하여 버스를 바꿔 타고 Irako View Hotel에 묵게 되었다. 온천을 즐기는 일본인들이 유카 옷을 걸쳐 입고 식당을 확보하는 것이 조금 눈에 거슬렸으나, 여러 종류의 음식이 즐비한 식탁을 보고 배불리 먹었다. 컴퓨터방에서 모기한테 물린 김형달 동문의 딸 Christine이 퉁퉁 부어올라 tiger balm을 임시로 바르게 하였고, 방에서 TV에서 중계되는 일본과 한국의 축구시합을 보니 정말 감회가 무량했고 무승부 무득점을 보고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다.

13일 아침 동쪽창이 있는 방에서는 일출을 분수가 있어 장관이었다. 버스로 도요하시 역으로 가서 신칸센을 타고 한 시간 가량 지난 후 신후지역에 내려 새로 나온 버스로 갈아타고, 구름에 끼인 후지 산은 종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도쿄에서 두시간정도 떨어진 하코네 온천에 들려 해적선을 타고 이시 호수를 건너 오우쿠다니에서 로프웨이(cable car)를 타고 올라가 길이 모락모락 나고 유황냄새가 나는 곳에서 7년을 더 젊어진다는 검은 달걀을 두 개씩 먹고 10년 회춘을 바랐다. 도쿄 중심지에 도쿄 전망대를 올라가 시내 구경을 하고 한국 식당 '고려'에서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유난히 매워서 맛을 잘 모르겠다. Metropolitan Hotel에 짐을 내리고, 최원일, 한경석부부와 유종현군이 이계부케로 역 근처의 골목 주점에 들어가 정종, 맥주 등에 갈비, 돼지, 허 등을 숯불화로에 굽고 옛날 학창시절 무교동에서 곱창을 구어 막걸리를 들던 생각을 상기 시켰다.

14일 아침에 도쿄의 심장 '황거'를 밖에서 둘러보고, 니코에 도착하여

'쥬젠지' 호수에 도착하여 두부껍질로 만든 유바라는 음식을 곁들여 들고, '게곤폭포'를 99m 높이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사진도 찍고, '도조궁'을 방문 하는데 올라가는데 22번 내려가는데 26번 curve를 돌아 일본 문자 숫자와 같다고 했다. 세 시간을 운전하여 후쿠시마를 도착 크누기다이라 호텔에 마지막 밤을 자게 됐는데, 방은 정통 일본식 다다미방이고, 온천욕을 위한 로브가 준비되어 있고, 다다미가 깔린 식당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정통 일본 식사를 하고 나니 방에는 이미 이부자리가 깔려있었다. 온천에 같이 가서 남녀가 따로 들어가기 전에 기념 촬영을 했고, 별거벗은 몸으로 온몸에 수술자국을 자세히 보여주는 광현군의 심정을 심분 알게 되었고 건강한 몸으로 우리와 일본여행까지 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였

다. 호텔 내에 작은 술집에서 원일, 경석 군과 함께 헤어지기 싫어 마지막까지 한잔을 기울이며 회포를 풀고 부인들한테 야단맞을 각오를 하고 늦으막하게 방으로 들어갔다.

15일 드디어 일본을 떠나면서 긴 동창회 겸 여행의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됐다. 아쉬운 다케 온천지를 뒤로 하기 싫어서 작은 호수 가를 거닐며 마지막 대화를 나누며, "건강하게 살아야해"를 열두 번도 다짐하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도 없이, 샌다이 공항에 도착하여 남아있는 일본 돈을 모두 거두어 마지막 한잔을 나누니 비행기는 어느새 시동을 걸고 재촉하고 있으며, 미국으로 돌아가는 스케줄이 모두 다른 고로 인천 공항에 내리자마자 잘 가라 하는 짧은 인사말을 뒤로 총총히 각자의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Green Project Corner

미네소타 대학교 페어뷰 병원 실습을 다녀와서

원 훈 재(서울대학교 본과 4학년)

1. 시작하는 말

의과대학 생활에서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본과 4학년 선택실습 기간에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실습을 하게 되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이었다. 연말고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던 작년 11월 말, 학교에서 연계된 미국 내 학교에서의 실습에 참여할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공지를 보고, 지원하는 친구들을 따라 지원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때 만약에 조금이라도 망설였거나, 고민했다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지 못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분명히 미국에서의 시간 동안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 시간은 나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주었으며, 모병원에서 수련 받고 대학교수로 남기 위해 노력하는 것 외에도 여러 곳에서 의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2. 선택실습의 목표

처음에 지원할 때는 확실한 목표 없이 맹목적으로 지원했던 면이 있었다. 하지만, 선발된 후 준비하면서, 나에게 이루고 싶은 목표가 몇 가지 생겼다. 첫째는, 미국에서의 정형외과 실습을 열심히 진행하면서 3학년 실습에서 충분히 공부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정형 외과적 지식을 넓히는 것이다. 둘째는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 미국의 의료 환경을 상세히 경험해서 한국의 의료 환경과 비교해 보는 것이었고, 셋째는 미국과 한국의 의학 교육 차이 및 전공의 수련 과정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실습이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는 이 목적들을 모두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3. 미네아폴리스에서의 생활

미네아폴리스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다. 비록 10월~4월의 6개월 정도는 너무나도 추워서 밖에 돌아다닐 수도 없고, 눈이 매우 많이 내리는 날씨가 많지만, 우리가 갔던 7~8월에는 거의 대부분의 날에 화창한 햇빛이 비추며, 비도 거의 오지 않는 날씨가 지속되었다. 또한 도시 자체도 뉴욕 또는 시카고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을 주어서, 높은 건물도 거의 없었고, 보기만 해도 답답함을 일으킬 수 있는 교통체증도 전혀 없었다.

미네아폴리스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적잖이 놀랐다. 도시가 크지 않고,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했다. 실습 담당 교수님이 빌려주신 덕분에 나도 실습 기간 동안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이용해보니 자전거가 얼마나 편한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미네아폴리스의 미국인들도 너무나도 친절할 것도 실습 기간 내내 나를 즐겁게 한 점이었다. 지역마다 사람들의 특성이 다르다고 했는데, 미네소타 주(중부) 사람들은 대개 친절하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병원 내에서는 지나가다가 눈을 마주치면 아는 사람이 아니라도 항상 인사를 했으며, 어떤 상점을 가더라도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주었다.

4. 정형외과 실습

총 6주의 실습 기간 동안 나는 정형외과의 다섯 개 분과를 돌면서 실습을 할 수 있었다. 특히 마지막 주에는 담당 교수님의 배려로 내가 관심 있



어 하던 분야인 정형외과의 응급 상황(On-call)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실습 기간 중에는 각 1회, 2시간 정도씩 Scrub session과 Casting session이 있었는데, 1~2명의 학생이 한 선생님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다. 특히 scrub session은 수술장에서의 여러 setting이 한국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실습 마지막 주에는 다른 학생들과 같은 형식으로 테스트를 치를 수 있었다. 50개의 문제가 출제되었고, 시험 문제는 언어가 다를 뿐 유형은 비슷했다. 다만 놀란 것은, 시험을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치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주요 과목의 시험들은 이런 형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들었다.) 나는 아무런 감독 없이, 원하는 장소(나의 경우 정형외과 사무실 옆의 도서관)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가장 좋았던 경험은 다섯 번째 주에 있었던 증례 발표였다. 원래 매주 화요일에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발표하는 증례 발표 시간이 오전 7시부터 1시간씩 있는데, 담당 교수님의 배려로 내가 그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비록 언어적 어려움 때문에 남들보다 준비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하고자 하는 바를 모두 완벽하게 전달하지는 못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공의 선생님들 및 교수님과 환자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며, 영어로 발표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다.

5. 미국과 한국의 의료 환경 차이

미국과 한국의 의료 환경적인 면에서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다. 우선 외래에서, 우리 병원의 환자 당 3~5분 진료와는 달리, 여기에서는 한 교수가 하루에 15~20명의 외래 환자를 진료했다. 따라서 환자들은 전공의와 교수를 포함한 의사들과 더 많은 시간(30분~1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의료 만족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진료 중간에는 학생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진료를 본 환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이는 학생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많고, 시간은 부족해서 이런 면이 없는데, 그 점이 아쉽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주요한 차이점으로 의사들은 환자의 진료가 끝나고 나서야 진료 기록을 '목소리'로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가 많고, 의사는 바쁘기 때문에 진료 '중'에 컴퓨터에 전자로 기록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의사들은 환자의 얼굴을 보기보다 컴퓨터의 모니터를 보고 진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서는 진료 중에는 전적으로 환자의

얼굴과 몸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만큼 환자와의 rapport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수술장에서도 많은 차이점이 있었는데, 가장 큰 차이점으로 수술 필드에 의사가 적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크럽 간호사를 제외하고도 세 명, 많게는 네 명의 의사가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미국에서는 아주 어려운 수술이 아니면 두 명, 많게는 세 명이 전부였다. 아무래도 미국이 땅이 넓고, 한 대학교에 속한 병원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 또한, 교수들은 자기들이 집도하기 보다는 전공의에게 집도를 맡기고, 자신은 수술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가르치면서, 집도의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주로 하였다.

의사들에 대한 복지 측면에서도 차이는 있었다. 큰 예로, 여기에는 수술장과 외래 병원에 각각 의사 라운지라는 공간이 있었는데, 의사들이 수술 또는 진료 중간에 와서 쉬면서 TV도 보고 간단한 간식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우리 병원에서는 이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강의실에서 자고, 좁은 공간에서 쉬는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이런 변화를 통해서 의사들 특히 전공의 선생님들의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그것이 의료의 질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6. 미국과 한국의 의학 교육의 차이

배우는 과목이나 내용이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체계 자체는 차이가 있었다. (물론 이것은 학교마다도 다를 수도 있겠다.) 미네소타 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은 56주 동안 10개의 필수 실습(각 4~8주, 내과는 12주)과, 20주 동안 몇 개의 선택 실습(각 2~4주)을 경험할 수 있었다. 놀라운 점은 학생들은 3, 4학년 2년 동안 23주의 방학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때에 아무 때나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탄력적인 구조는 학생들이 조금 더 편하게 실습을 돌고, 의학 공부 외에 다른 원하는 걸 하기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7. 미국과 한국 전공의 수련의 차이

의료 환경 차이에서도 이야기 되었던 것처럼, 전공의들은 교수와 거의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였고, 수술 등의 부분에 있어서는 집도를 하는 등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는 병원의 분위기가, 교수님들이 자신들의 성과를 쌓기 보다는 전공의들에게 더 많이 가르쳐주고, 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체계적 측면에서는, 수련 기간이 전공 분야별로 3~8년으로 다양하다는 점이 놀라웠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개의 분야를 제외하면 4년으로 획일적인데, 어떤 편이 더 좋은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웠다. 분야 별로 배울 내용의 양도 다를 테니 기간이 다른 것은 합리적이지만, 8년이라는 시간은 지나치게 길다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졸업 후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병원에 수련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대개 그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바로 일차 진료 환경에서 배우려는 의사들도 많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8. 한국인 의사 선생님들

미국에서는 미네소타 대학교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 coordinator인 Shannon Benson과 여러 미주동창회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세 분의 한국인 의사 선생님들을 뵈 수 있었다.

Steven K. Juhn(전성균) 선생님은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신경외과 의사를 하시고, 현재는 이비인후과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계신 선생님이었다. 두 번 정도 만나서 선생님과 맥주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드디어 미국에서의 시간이 시작이구나 하고 느꼈다. 그리고 선생님이 계신 이비인후과

의 의사들이 참석하는 파티에도 초대받아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 분위기도 느낄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선생님 덕분에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Ray Kim(김웅) 선생님은 미네아폴리스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Rochester의 Mayo Clinic에서 소화기내과에 계신 선생님이었다. 선배들에게 또는 매체를 통해서 말로만 들던 그 '메이요 클리닉'을 방문해볼 기회가 있다니 생각만으로도 설레는 기회였다.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덕분에 오전에 Mayo clinic의 무료 투어를 참가할 기회가 있었는데, 투어가 매일 진행되는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병원의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가이드를 통해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보며 이 병원이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느낄 수 있었다.

저녁때는 선생님의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사모님도 우리 학교 출신의 선배님이셔서 과거와 현재의 서울의대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또한 미국에서의 의사 생활에 관해서도 많이 듣고, 또 스스로 느낄 수 있던 기회였다.

Gabriel Won Chung 선생님은 미네아폴리스의 옆 도시인 세인트폴(Saint Paul)에 있는 Regions 병원이라는 곳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었다. 두 번 정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다. 특히 나중의 만남 때는 선생님의 댁에 가서 가족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였는데, 사모님 역시 가정의학과 의사여서 미국에서의 의사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9. 맺는 말

사실 처음에는, 아니 출국하기 전까지도 비록 짧은 기간이라도 내가 미국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다. 특히 준비를 조금 늦게 한 탓에 정확한 실습 일정이 정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어려움과 고민은 더해졌다. 하지만, 실습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행운이었으며, 그곳에서의 기억이 평생에 다시없을지도 모를 즐거운 추억이었고, 이로 인해 내가 어떻게 의사 생활을 해야 할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에 있으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미국에서의 의사 생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의 선배들이 그랬듯, 앞으로 후배들도 미네소타 대학교를 포함한 미국, 더 나아가 다른 외국의 병원에서 실습할 기회가 분명히 주어질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예전의 내가 그랬듯이 분명히 고민하고, 주저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학생들에게는 고민이 되더라도 한번 경험해보라고 얘기하고 싶다. 투자해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몇 배는 더 값진 경험과 추억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막연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미주 동창회를 포함한 많은 선배님들께서 언제나 도와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도전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습 일정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본교 및 미주동창회의 많은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했고, 말로는 감을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 글을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紙上法醫



복막염의 원인

노용면(55, 대뉴욕)

파머씨(Mr. Palmer)는 퀸즈에 있는 어느 병원 수술실에서 사망하였다.

수술을 실시한 외과 의사가 법의관실에 전화를 걸어와 내게 하는 말이, 그 환자가 수술실에서 사망했는데 자기 생각으로 그것이 자연사 같으나 그래도 내 의견을 알고 싶다고 했다. 환자의 배를 열자마자 심한 복막염이 있음을 발견했고, 그 복막염의 시작은 췌장(pancreas)인 것이 틀림없다고 했다. 그런데 췌장이 왜 터졌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환자가 병원에 하도 늦게 도착했기에, 수술 전에 정밀검사를 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여 말했다. 그러면서 그 환자의 죽음이 자연사라고 하는 그의 의견에 내가 동의한다면, 자기가 사망진단서를 발행할 의도가 있으니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내가 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니, 그가 별로 말은 하지 않아도, 간단한 자연사를 두고 어찌하여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태도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인이 진짜로 자연사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책임은 법의관에게 있다. 미국에서 일반 의사들은 자연사(natural death)의 경우에만 사망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다.

나는 이 케이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잠시 생각해 보았다. 의사의 진술에 의하면, 수술 자체가 사인은 아닌 듯 했다. 마취와도 관계가 없는 듯 했다.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심한 복막염을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면 그 췌장이 파열된

이유를 찾아내야 했다. 외과 의사가 그의 췌장에 낭종(cyst)같은 것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외부에서 맞은 타격으로 터졌는지, 아니면 그전에 받은 외상 때문에 생긴 병조를 그 의사가 낭종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등을 생각해 보았다. 나는 그 외과 의사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사무실이 그 케이스를 좀 더 조사해 보는 것이 옳을 듯 하여, 시체를 법의관실에서 인수한다고 했다.

법의관은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자연사들을 잘 조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자연사와 비자연사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임상 의사가 자연사라고 해도 그것을 잘 조사해 보면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올 때가 있다. 사람을 살해하고 그것을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는 범죄도 흔히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니 미국에서 정식으로 훈련을 받은 법의사들이 사회 질서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파머씨의 시체를 부검하기로 했다. 그 소견은 참으로 특이했다. 췌장에 있던 오래된 상처가 복막염의 원인이었다. 췌장에 커다란 농양(abscess)이 있었는데 그것이 터져서 염증이 펼친 것이다. 그 농양은 오래된 타박상이었고, 이 사실을 조직검사로 뚜렷하게 증명할 수 있었다. 법의사의 임무는 '원인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나는 경찰에 연락하여, 파머씨가 과거에 심한 외상을 복부에 받았는데,

그 원인을 조사해 달라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찰이 아무런 보고도 안 해 왔다. 자기네에게는 그가 외상을 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없다는 말조차 안했다.

우리가 경찰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파머씨의 먼 친척이 된다는 사람이 찾아 왔다. 그는 법의관실이 가족에게 파머씨의 시체를 곧 내 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털어 놓았다. 파머씨는 오랫동안 우체국에서 편지 배달부로 일해 왔었는데 몇 년 전 직장에서 은퇴했다고 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그의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아, 부인이 병원에 가보라고 일렀지만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있더니, 결국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어 앰브런스로 병원에 실려 갔다는 것이었다. 그의 처는 건강이 좋지 않아, 별로 거동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했다. 그들에겐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는데, 그들은 멀리 떨어져 살며 일 년에 한 번쯤 만날 정도로 했다. 또한 파머씨는 우편물을 배달하다가 차에 치어 부르클린에 있는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었다는 말도 했다. 엄청난 병원비용을 우체국이 들어 있는 보험회사에서 지불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덧붙여 말했다.

나는 곧 그 병원에 연락하여, 파머씨의 기록을 모두 보내 달라고 했다. 우리 사무실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요구한 것이다. 병원 기록을 보니, 파머씨가 교통사고로 몸 여러 군데를 다쳐서 입원했었다는 사실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그때 파머씨의 췌장 부위에 심한 손상이 있어 이와 관련된 여러 증세들이 있음을 담당 의사가 샅샅이 기록했었다.

나는 상기한 모든 내용을 경찰에 알리고, 이에 대한 그들의 보고서를 보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아무런 통지가 없었다. 결국 나는 이 사건

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이, 그의 죽음을 단순히 "교통사고로 생긴 췌장농양의 파열로 인한 화농성 복막염"이라고 진단했다. 물론 이 사인을 과실사로 분류했다. (Diffuse purulent peritonitis due to ruptured pancreatic abscess. History of being struck by automobile. Accident.)

법의관실의 이러한 보고서를 보고, 파머씨의 부인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그 교통사고에 대해 조사를 하고 나섰다. 그의 조사에 의하면, 그 사고가 생긴 날 경찰차가 자동차를 훔치고 도망가는 차를 쫓고 있었고, 두 자동차가 오랫동안 빠른 속도로 비틀거리면서 달리고 있었다. 그러던 나머지 훔친 차는 건물 하나를 디려받았고, 경찰차는 그 건물에서 나오는 우편배달부를 쳤다. 그 당시 이 사건은 자동차 사고가 아니라, 차도둑을 잡는 케이스로 논란된 듯하다. 경찰 보고서를 보니, 파머씨 이야기가 차도둑 사건 속에 잠깐 언급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밝혀낸 변호사가 뉴욕시를 걸어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그러니 약 일 년 후, 뉴욕시를 대변하는 변호사 한 사람이 내게 전화를 걸어와 파머씨의 죽음에 대해 묻기에, 내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잠깐했던 사건을 공연히 들추어내어 뉴욕시가 큰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고 했다. 법의관의 수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모르는 듯 한 그의 태도가 한심했다.

References:
1. Yong-Myun Rho: Murder or Suicide. New York State Journal of Medicine 78:965 1978.
2. Yong-Myun Rho: Medical Examiner's Authority. Challenge to Perform Autopsies. New York State Journal of Medicine 81:1687 1981.

노년기의 성 활동

정유석(64, 북가주)



노년기 성생활에 대한 연구 조사 결과는 지난 수십 년 간 여러 종류의 전문지나 미국 잡지들을 통해 자주 접해왔다. 예전부터 미국

인들은 동양인들에 비해 성 활동이 비교적 개방적이었으며 사회적으로도 노년층 인구가 이미 상당히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자연히 그런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자료를 접하면서 이들을 칼럼을 통해 소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한국인들은 성 문화에 비교적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서 노인들에게는 성욕이나 성 관계가 없다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년기만 되어도 성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더럽고 망측한 부류로 취급해 왔다.

몇 년 전에는 한국 언론에서 '50대 노파'라는 표현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아마도 20대의 젊은 기자에게 4, 50이 넘는 여성이면 노파로 표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현실에서 볼 때 50대 여자들은 일생을 통해 임신할 걱정 없고 성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완숙해져서 가장 성 생활을 즐기는 나이에 속한다.

사람이면 누구나 시험관에서 수정되지 않은 한 부모의 성행위의 결과로 세상에 태어났을 터인데 자기 부모만은 그런 망측한 짓을 하지 않았으리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면 노인파섹스는 전혀 무관한 것 같이 보인다.

그런데 마침 2009년 12월 서울시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시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1천명을 상대로 '노인의 성(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되어 각 중앙 일간지 사회면에 기사화 되었다. 이제는 한국도 노년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된 것이라도 본다. 필자가 오래 전부터 언급한 것을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그 내용의 요점만을 간추려 그대로 인용한다.

우선 응답자의 28.4%가 월 1회 이상 성관계를 한다고 답했다. 그것은 65세 이상 어르신네들 주에 거의 1/3이 성 생활을 계속한다는 말이다. 성 생활을 지속하는 노인의 월 평균 성관계 회수는 1회가 31.3%, 2회가 40.8%였다. 이들의 53.4%는 성관계에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성관계의 대상은 배우자가 76.4%, 이성 친구가 16.3%였다. 조사 대상 노인의 21.7%는 이성 친구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성을 만나는 장소는 복지관이나 경로당(51.3%)이 가장 많았고 각종 모임, 단체도 13.1%로 나타났다.

81.8%는 성관계를 위해 약물 또는 기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11.6%는 발기부전치료제를 2.1%에는 윤활제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노년기에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노인은 남성의 28.4%인 132명이었고 여성은 4.6%였다. 남자들의 경우 대부분은 소위 '바카스 아줌마'로 불리는 여성을 통해 성욕을 해결할 것이다. 그러나 적기는 해도 여성에서도 남자에게 돈을 주고 성을 산 경우가 있어서 흥미롭다. 가난한 동년배 남자에게 돈을 지불하거나 또는 소위 '호스트 바' 문화가 한국에 정착된 지

20년은 족히 넘었으니 여자들이 젊은 남성들을 돈으로 사는 것이 사회현상의 하나로 고착된 결과일 수도 있다.

이들의 성매매 횟수는 지난 2년 간 5회 이하인 경우가 56.7%, 6~10회인

농담 골목

경찰이 바지의 지퍼를 안 잠근 채 걸어가서 사람을 잡아 disorderly conduct 죄로 동네 법정에서 데리고 갔습니다. 판사가 그의 이름, 주소, 가족상황 등을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몇이 있는냐고 물었더니 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판사가 경찰을 보고 "이 사람은 바지 지퍼를 잠글 새가 없었소."라고 했습니다. (면)

90년대 초반의 부부가 4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부인이 외출을 하고 돌아와 침실에 들어가 보니 남편이 젊은 여자와 같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부인이 창문을 열고 남편을 창밖으로 밀어 내렸습니다. 부인이 살인죄로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그녀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대답하기를 90세 노인이 젊은 여자와 잘 정도면 창밖에서 날아갈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문턱만 넘을 수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면)

연말파티에 갔더니, 사회자가 말하기를 "여러분, 자동차 운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 같은 날엔 길가에 경찰차가 많습니다." (면)

할아버지가 설명하기를 술은 마시는 것이고 물은 씻는데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면)

경우가 26%였다. 성매매에 관한 '필요하다'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16.8%와 6.3%였으며 다수인 66.7%는 '성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여성이 본 남자의 종류
소년은 부속품 / 총각은 신제품
약혼자는 특허품 / 남편은 필수품
이혼남은 재고품 / 홀아비는 중고품 (이덕승)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남자의 80%는 자신이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여자의 80%는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한다.

남자는 목욕을 같이 한 후 친해지고, 여자는 친해진 다음 목욕을 같이 한다.
남자는 울 때 하늘을 보며 울고, 여자는 울 때 거울을 보며 운다. (이덕승)

술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사랑은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술은 우리를 왕자로 만들고, 사랑은 우리를 거지로 만듭니다. (김세-)

갓난 아기는 울어도 눈물이 없는 까닭? 아직 세상을 몰라서. (김세-)

옛날에는 남학생이 여학생을 보면 침을 흘렸는데, 지금은 여학생이 남학생을 보면 침을 흘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강)

국회의사당 근처에 있는 모기들은 빨대가 겁니다. 국회의원들의 얼굴 피부가 두꺼워집니다. (허선규)



인류의 운명 VI

임 낙 중(59, 메릴랜드)

내가 의예과에 다닐 때 철학을 하던 친구가 권해서 Thus Spoke Zarathustra 라는 니체의 책(英文판)을 읽었다. 읽는 동안 몹시 흥분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그때 책 내용이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다.

니체의 저서는 재미가 있어서 플라토 다음으로 지식인들이 많이 읽는 책이라고 한다. 또 그가 철학보다 문학에 끼친 영향이 큰데 싯트르, 까뮤, 지드, 말로, 토마스만, 헷세 등이 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프리드리히는 니체만큼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본 사람은 없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내가 니체를 소개할 자격이 없는 줄 잘 알기 때문에 그의 명구를 소개하는데 그치고 그의 사상의 판단은 독자에게 맡긴다.

Friedrich Nietzsche(1844~1900)는 근세 철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인 인식론에는 관심이 없었다. 칸트를 도덕의 광신론자라고 비웃었고 어떤 철학적 체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세상은 본래 어떤 목적이나 질서가 없다는 것이 그의 기본 신념이었다.

그는 쇼펜하우어의 주장, 즉 인간이 근본적으로 의지(will)라는 것, 그리고 미의 추구하고 창조로 세상의 무요함과 혼란과 고통 등에서 도피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했다. 의지가 가장 우위라는 쇼펜하우어의 주의주의(主意主義)에 그리고 인간이 살려는 의지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도 동의했다. 그러나 해탈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약자의 태도라고 비난했다.

니체는 고통을 사내답게 맞서 싸워 이기려는 적 또는 표적으로 보았고 오히려 고통을 환영하라는 것이 그의 기본 태도였다.

"용감한 의지는 고통을 무시하고 찬고 견디며 고통을 돌파하여 창조하는 자기의 힘에 희열을 느낀다." "겁 많은 자는 고통 앞에 굴복한다." "과거에 저지른 흠을 들추어 죄의식에 빠져 괴로워하지 말고 훌륭하고 뛰어난 행동을 하라" "관습, 사제, 상례 등의 노예가 되지 말고 스스로 초인(超人, superman)이 되어 맞서 싸워라." "초인은 악과 선을 초월한다." "악이란 병적인 양심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힘으로 행동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이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런 말들을 따르면 보호를 받을지 모르지만 초인이 할 짓이 아니다.

체념하기 위하여 체념하는 것보다 도덕적으로 더 추악한 것은 없다고 했다. 니체는 모든 전통적 가치관을 뒤집어 놓았다. 비겁하게 물러서지 말고 초인으로서 극복하라고 했다.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유명한 명구는 고학의 발달과 서구 사회의 세속화가 서구 문화의 가치관과 사상의 근저가 되는 기독교의 신을 사실상 죽인 것과 다름이 없다는 의미이고 이 때문에 그는 반기독교적 철학자로 불린다.

니체는 전통적 도덕의 모순성을 파헤쳤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초인 사상을 외친 예언적 철학자였다. 이 초인과 힘에 대한 의지의 사상을 히틀러와 그 추종자들이 이용하였고 그 때문에 그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말년에 뇌일혈로 집착되는 증상으로 사고의 기능을 잃었지만 그의 천재성

에 관해서는 아무도 의심할 수 없다. 내가 은퇴하고 나서야 내 전공 외에 아는 것이 너무 없다는 것을 느꼈고 교회에 나가면서도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잘 몰랐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늦게나마 인류의 문화적 유산을 알리고 하는 분들에게 쉬운 말로 전하고 싶은 것이 이 글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다.

십구 세기 서구의 철학을 뒤지다 보니 바로 이 시기에 나의 조상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졌다. 이 기회에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한국 역사에 관해서 나는 ambivalent 하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한글을 만든 왕이 있는 반면 가장 추악한 당쟁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이조였다. 이조 역사하면 영조와 더불어 십팔 세기를 대표하는 군주인 정조를 위시하여 세도정치와 대원군의 집정 등이 먼저 떠오르고 서양문화와 천주교의 도래 그리고 실학과 동학 등이 뒤를 잇는다.

십칠 세기 초부터 한국에 들어온 서양문화와 천주교의 역사는 방대하고 잘 알려져 있으므로 접어두고 실학(實學) 얘기를 할까 한다.

실학이란 십칠팔 세기 한국에서 정치, 경제, 과학, 역사, 의학 등 전반에 걸쳐 변화를 일으킨 새 학풍(學風)을 말한다. 주자학의 전통에서 벗어나 실증적 과학적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회를 개혁하려는 사상으로 예를 들면 관료와 노비제도 그리고 토지제도의 개혁, 기술과 상공업 등 경제 제도의 개혁 등이 그 골자이고 주체적 역사관을 세워 발해와 고구려에 대한 재인식과 三韓正統論 등을 주장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려고 하였다.

대표적인 인물인 정약용은 잘 알려진 대로 1801년에 시작된 십구 년간의 귀양살이 동안에 쓴 목민심서 등 저명한 저서를 남겼다. 그러나 실학은 주자학의 배경 안에서의 개혁이며 봉건적 유교제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안에서의 개혁이었기 때문에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없었다. 즉 정약용이 한일합방 바로 직전 순종에 의하여 사면을 받았으니 그의 선견지명은 책으로 땅에 묻혀 있었고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했다.

실학은 서구의 근세 철학자나 과학자들이 카톨릭 교회를 두려워하여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지 못했거나 숨긴 사실을 상기시킨다. 실학은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다.

이조 말에는 정치적으로 안동 김씨(1801), 풍양 조씨(1827) 그리고 제이차 안동김씨(1850)의 세도 정치로 인하여 왕권과 관기가 땅에 떨어져 있었다. 이때 세도 정치를 물리치고 집권한 대원군(1864~1873)의 집정은 공도 있었으나 허물도 많았다.

왕권의 복구와 서원 철폐 등의 개혁적 정책도 있었으나 경복궁 재건으로 나라의 재정이 쓰러질 정도의 국가라면 경복궁 재건보다 국력의 양성이 화급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이다.

쇄국정책 때문에 선원 스무 명이 탄 상선 제너럴 셔만호를 대동강에서 물리쳤다고 승리감에 취할 만큼 세계물정에 어둡고 국력은 영에 가까웠다. 외교 부재와 청국에 대한 사대주의 하나로 외부 세계를 대했으니 한국은 누가 따먹어도 되는 잘 익은 홍시였다. 동학(東學)은 잔반(殘班) 출신 최재우가 서양의 동양침략과 천주교(西學)의 만연을 국가의 위기로 보고 세

운 종교다. 양반사회의 모순을 없애고 민족적 신앙의 진흥을 위하여 유불선의 사상에다가 주문과 부작 등의 무속신앙과 경천(敬天)사상을 합하여 만든 종교다. 그가 흑세무민의 죄를 쓰고 사형(1863)을 당했고 신도들이 그 누명을 벗겨달라는 신원 운동을 조정은 묵살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동학도들이 고부 군수 조병갑의 학정과 전횡을 도화선으로 폭발하여 동학란으로 발전했다.

동학혁명은 실패로 끝났다. 그 이유는 동학이 근왕사상을 간직한 체로 즉 조선 왕조를 보존한 채 개혁하려는 운동이었으므로 조정의 군사에 대한 전투 명분이 약했다. 수적으로 압도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부족하고 지도자가 부족한 오합지졸이라 일본군 일개중대를 당해내지 못했다. 또 종교적으로 사머니즘에 치우쳐 영혼의 구제나 영생과 같은 종교적 구심점이 결여된 종교였다.

대원군 집권 당시에 일어난 병인양요는 당시 한국의 국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1866년 불란서 군함 일곱 척이 군인 천명을 싣고 불란서 신부를 학살한 조선정부를 보복하겠다고 명분으로 강화도를 공격했다. 이를 물리치는데 화승총을 쓸 줄 아는 군인이 모자라 전국 포수를 급히 모집하였고 사냥꾼 549명을 모아 강화도 탈환 공격에 나섰다. 불란서군은 은괴 887킬로그램과 강화도에 있던 외규장각 장서 6130권중 340권을 본국에 실어갔고 나머지는 불에 태웠다. 불란서군 고작 천명을 물리치는데 사냥꾼 포수를 모아서 싸운 나라를 어찌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은 나라의 국력이 고작 이 정도였으니 통탄할 일이다. 총을 가진 일개 대대의 병력도 없는 나라였다.

본론으로 돌아가 Jeremy Bentham (1748~1832)과 James Mill(1773~1836)은 19세기 영국의 공리주의(Utilitarianism)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모든 행위의 가치를 공리(功利)원리로 평가했는데 공리원리 또는 최대행복의 원리란 모든 인간의 행동을 본인의 행복을 증대시키느냐 혹은 감소시키느냐에 따라서 평가한다는 원리다.

이때 행복이란 쾌락을 의미하고 불행은 고통이며 쾌락은 가능한 한 고통이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 쾌락 자체를 선하다고 보며 감각, 재산, 자선 등 여러 근원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최대의 행복은 고통 없이 얻는 데에는 이성의 인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동기 자체에는 도덕적 의미가 없고 행위가 초래하는 쾌락의 결과가 선이냐 악이냐의 판단을 좌우한다.

결과가 어떤든 간에 동기가 선하면 선하다는 칸트의 생각과는 정반대다. 그들은 사람은 그의 행위에 의하여 얻게될 장래의 쾌락을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했다. 동기가 같으면 결과야 어떻든 간에 도덕적 가치가 같다는 칸트의 윤리와 공리주의 윤리와는 좋은 대조가 된다.

한편 공리주의는 Aristippus (435~360BC)와 Epikuros(331~270BC) 등이 대표하는 쾌락주의와 닮았다.

쾌락이 진정한 선이요, 최선의 사람은 최대량의 쾌락을 얻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행복은 쾌락의 총계(總計)라고 한 쾌락주의와 공리주의는 닮은 데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돈, 이성, 명예와 같은 쾌락이 아니고 신중히 앞뒤를 살펴서 고통이나 해를 초래하지 않는 쾌락을 선택해서 성취하는 쾌락을 뜻한다.

쾌락주의와 공리주의 등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하고 동기가 가치 판단에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Consequentialism 이라고도 한다.

Pain(고통)과 Pleasure(쾌락 혹은 행

덤덤히 살아가게노라

이한중(65, 미시간)

그저 덩덤히 살아가겠노라.
또 한 해는 가고,
또 한 해는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한 해는 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한해는 오고,
그렇게 칠십년,
이 신의 전당, 내 몸뚱이,
조그마한 우주,
나는 뻘히 들여다본다.
나의 어머니, 이 지구,
내 걸음걸이 느리게,
지긋이, 이 늙어가는 몸,
끌어 다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아침저녁 상기시켜
깨닫게 하는구나.

그저 덩덤히 살아가겠노라.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 어디를 거쳐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떻게 내 사람을 만나,
어떻게 애들을 기르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등등은
지나간 시간 속에 간직해 놓고,
이젠, 그분과 나,
이젠, 그분과 나의 매일할일들,
이젠, 그분과 내 사이에 침묵,
이젠, 내 사람과 나,
한 소년과 한 소녀,
한 할아버지와 한 할머니,
나의 우주는 간단해졌노라.
아무런 질문도 필요 없고,
아무런 대답도 필요 없이,
그저 덩덤히 살면 되느니라.

그렇게 덩덤히 살아오고,
살다보면,
분명히 저 태양은 아침에 뜨고,
분명히 저 보름달은 찾아오고,
분명히 저 별들, 저 은하수,
저 별뿔들, 저 갤럭시들
여전한데,
어느새 나의 DNA,
내가 부모님, 조상들로 부터
물려받은 그 씨는
내 세 지식들, 다섯 손주들에게
물려 준지 오래 되었거늘,
혹시 누가 알 일지요?
덩덤한 하루하루에서
웃음들이 있고
기뻐할 일들,
울어야 할일들 있을지.
분명코 그러 하리다.

분명코 나는
오직 덩덤히 그러리다.
덩덤히 웃고,
덩덤히 기뻐하고,
덩덤히 울겠어오이다.

복)만이 도덕적 가치(Intrinsic Value)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Jeremy Bentham의 공리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도 다르다.

예를 들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2)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마 5:22)라는, 이 두 가르침은 동거나 마음이 행위와 같은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또 금강경의 한 구절을 소개하면 若菩薩 有我相 人相 衆生相 壽字相 卽非菩薩이라 했는데(다음면에 계속)

자녀 양육을 위한 엄마의 최면(1)

인생은 경험으로 시작되고 기억으로 엮여진다
최면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화해시키는 강력한 도구이다.
재확인된 자기 신뢰로 자신의 미래를 창조한다

임경자(김병석 '59 동문부인)

을까,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최근에 결혼하는 제자 부부의 이야기는 미리 DNA 테스트를 해보았노라고 흥미 있지 않느냐고 하며 그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왔었다. 참 앞서가고 있는 세상에 나 자신은 완행으로 따라가며 살고 있는 느낌을 숨길 수 없었다. 현실에 그런 과격적인 첨단 의학이 우리 옆에 있다하더라도 여전히 대처해야 할 방법은 낯설기만 하다. 유전자를 불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거나 그 자체를 우리의 의도대로 바꿀 수 있는 세상이 오기는 올 것인지 의문이다. 부모의 눈앞에 있는 아이에게 제2의 유전자, 또는 다른 후천적인 자아와 유전자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연구와 각성과 변화가 절박하다.

이 글을 읽어 내려오는 아마 독자들은 이미 자문자답을 마쳤을 것이다. 그 두 가지 요인은 따로따로가 하나로 되어 아이의 심신과 영혼에 동반하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는 내 나름대로 만들어서 나 자신을 훈련(?)해온 나의 철학이 하나 있다. 어떤 극단적인 문제나 절박한 일에 부딪힐 때 나는 49:51의 지면을 연상한다. 나와 너 사이, 선과 악 사이, 행복과 불행 사이, 사랑과 미움 사이, 원인과 결과 사이, 성공과 실패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그 모든 것과 화해하기 위한 준비된 지혜였을까.

모든 이익과 손해를 공격과 양보를 49:51로 보아 진행하다보면 나와 나는 꼭 주고받아야 하는 사이가 아닌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기만 하면 무난한 관계가 될 수 있었다. 삶의 여정 중에 적어도 경쟁과 갈등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자기 최면이었다.

그래서인지 성장과정과 젊은 시절을 되돌아켜보면 나는 누구와 경쟁심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언젠가 누군가 골프를 얼마나 치느냐고 해서 나는 혼자 하면 1등으로 잘치고 4명에서 하면 4등으로 친다고 해서 여럿이서 웃을 수 있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말로 알고 싶다면 정신 분석을 받아보기를 권한다. 자신이 무엇에 치중되어 살고 있는지 어떤 것이 문제인가를 알아내어 분석한 후, 행복하고 건강한 자신의 인생을 위해 자신이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우선인지 파악할 수 있다. 정신 분석으로 자기 진단과 전문인의 진단으로 정신 치료와 심리치료를 받으며 자기 최면을 함께 사용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라고 믿는

양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고통과 쾌락 또는 행복만이 도덕적 가치 혹은 선의 가치라는 생각이 변하여 지식과 자율성 등도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공리주의도 생겼다. 또한 도덕적인 선중에는 안정된 도덕적 국가의 필요성도 포함되고 따라서 국가 방위도 정당성을 인정하는 주장이 생겼다. 또한 Marxist, 공산주의자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사상을 합리화 하는데에 공리주의를 이용했다.

즉 최다수에게 최대한의 행복을 주기 위하여 취하는 어떤 정치적 수단을 합리화 또는 정당화 하는 것이다.

이 계제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인간의 행위 중에 전혀 합리화 할 수 없거나 정당화 할 수 없는 행위는 없다. 한국 속담에 처녀가 애를 나도 할 말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결코 그런 말이 아니다.

다.
정신 분석의 특혜로써는 피상담자(환자)가 자신 인생의 창조에 있어서 유전인자와 환경원인 사이를 보다 열린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정신분석을 받아 자신의 자아와 진아를 발견하고 이해하고 정화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바람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아니겠기에 아쉬울 따름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또한 최신 과학에서 다루는 뉴런과 신경망과 컴퓨터와 우리의 뇌와 마음과 행동... 모두를 다 합하여도 당장에 쓸 수 있는 적절한 답은 찾아볼 수가 없으니, 수억 만개의 세포를 다 뒤집어서 아이들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신속하게 정확하게 용이하게 알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 필자가 되도록 쉽게 독자들의 일상으로 다가가고 있는 최면이 조금 이나마 부모로서의 노력과 희망에 가까이 접하게 되기를 바란다. 한 사람의 인성과 능력과 신체와 정신을 해부하듯이 나누어 생각하기 보다는 오히려 유전과 환경으로 인하여 창조되어 성장해온 한 인간의 전체를 주어진 현 상태 그대로 느끼고 이해한 후에 긍정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새로이 개선하기 위해 전체적인 것을 최단 순간 또는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2.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열망은 행복과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다.

가끔 생각해볼 때가 있다. 우주의 영장이라는 우리들 이 벌레나 식물

나 어떤 동물보다 더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느끼는가에 대하여. 세상 모든 것들에는 느낌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나는 언제 가장 기쁘고 행복한가. 내 자신이 자유를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 나의 행복과 자유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우리의 뇌와 마음에 입력되어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느끼는 것) 무엇을 어떻게 느끼는가 이다. 순수한 우리 아이들은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등의 생각과 판단의 이전에 감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절대적 첫 순위이다. 자신이 느낀 것, 시각적, 청각적, 신체 감각적인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것이 경험으로 쌓이고 저장되어 있다가 의식적인 행동, 반사적인 행동, 무의적인 반응에 눈 깜짝할 사이보다 더 빠르게 뇌를 빠져나와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다. 어떤 상태나 설명이 아닌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개인 삶의 질과 행복이 달려 있다. 순전히 개인의 감성과 생각구조와 창의력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의 모든 것이 이미 지나간 시간에 경험된 정보의 반영이라는 전제 조건에 우리는 잠깐 멈추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의 쟁점은 옳은 것, 좋은 것, 이상적인 것만을 선택하여 나타나게 할 수는 있을까 이다. 그 능력과 자유가 오랜 수행자들에게 만이 가능해왔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과 자녀의 행복을 선택하고 창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열망하는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2010 노벨평화상 여론

오태희(64, 커네티컷)



의랍스럽지만, 나는 1990년 의대 교수로 진급하자 서진 한림원 노벨상 위원회로부터 2년마다 생리학이나 의학상 후보자 추천의뢰서가 배달되기 시작하였다. 비록

꿈에도 내가 받을 수 없는 상이지만 수상후보자는 그래도 추천할 수 있음을 알았을 때 그 감격은 형언하기 어렵다. 그 이후로 나는 해마다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될 때 마다 의학상 수상자는 물론이지만 다른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가 누구인지, 업적이 무엇인지 피상적이거나 알아보는 일이 취미처럼 되었다.

각설하고, 올해 2010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중국인 류샤보(Liu Xiabo)가 10월초에 선정되자, 중국이 이를 취소하도록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강경하게 요구하고 나서자 국제적 여론의 불씨가 점화되었다. 류샤보는 무저항주의자로 천안문 사건을 평화적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복역 중인 반체제 인사이다. 한마디로 중국정부로서는 '눈의 가시'이다. 더구나 2009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 류샤보를 석방하여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하도록 고려하기를 바라는 서한을 보내자, 중국은 내정간섭이라고 대응하며, 수상자의 부인을 가택 연금하여 남편 면회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중국에서 중국 법에 의하여 11년 형을 언도 받고 복역 중인 피고인데 무슨 간섭이나 하며 중국의 입장만 고수하고 오히려 노벨평화상을 보이콧하도록 국제사회에 종용하고 나섰다. 처음에는 이에 호응하는

나라가 러시아 쿠바를 비롯하여 6개국에 불과 하였다. 그러나 노르웨이 정부가 노르웨이 주재 각국 대사관을 통해 노벨평화상 시상식 초대장을 보내자 참가통고를 한 나라가 44개로 예상과는 달리 줄어들고 중국의 눈치를 살피다가 불참한다는 나라가 모두 19개로 늘어났다. 이에 힘입은 중국은 대응책으로 '공자평화상'을 급조하여 노벨상 수상식 하루 전에 공자평화상 수상식을 가졌다. 한창류 공자평화상 선정위원장은, "오백년 뒤에 역사가 누구를 기억하는지 두고 보면 알 것"이라 설명하고 공자상 제정의 취지나 목적, 상금, 수상대상자 등에는 언급이 없었다.

제1차 공자평화상 수상자는 중국과 대만의 관계개선에 이바지한 대만의 렌잔 連戰 전 부총통이며 상금은 노벨상 상금의 1%가량인 10만 위안(元)에 불과하다. 이런 사태 발생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나 논평을 읽으면 냉전시대가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라 나도 남의 눈치를 좀 봐야 할 것 같다.

TNT의 발명이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의 평화를 유지한다고 믿었던 노벨이 21세기가 핵무기가 으르렁거리는 국제화 시대로 변한 사실을 알면 무척 실망할 것 같다.

참고로, 2010년 노벨상 수상자를 분야별로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1. 평화상 Liu Xiabo (중국)
2. 문학상 Mario Vargas Llosa (페루)
3. 경제학상(3인 공동): Peter Diamond (MIT, 미국), Dale Mortensent (Northwestern Univ), Christopher Pissarides (School of Economics, London 영국)
4. 의학상 Robert Edwards(영국)
5. 화학상 (3인 공동) Richard F. Hick(Univ Delwere 미국), Ei-ich Negish (Perdue Univ 미국), Akira Suzuki (Hokkaido Univ 일본)
6. 물리학상 (2인 공동) Andre Geim, Konstantin Novoselov (Univ Manchester 영국)

〈전면에서 계속〉 의역하면 佛道の 수행자가 나, 타인, 중생이나 자기의 나이 등에 집착하고 있으면 보살(깨친 자)이 될 수 없느니라.

즉 마음이 전부임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것이니, 행위의 결과는 안중에도 없다. 공리주의자라고 해서 도덕적 고찰이 없는 것은 아니다.

John Stuart Mill은 문화적, 지적, 그리고 영적 pleasure가 physical pleasure 보다 귀중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James Mill의 아들이다.

공리주의는 최다수의 인간을 위한 최대한의 유익(good)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로는 경제나 실용주의적 견해로 쓰이고 철학적 공리주의는 대단히 넓은 의미로 쓰인다.

Bentham과 Mill의 공리주의의 영향으로 Consequentialism이 발전하면서 다



버팀목

내가 받들며 살아온 金言 중에서

나 수 섭(50, 메릴랜드)

한갓 나그네 같은 인생을 걷는 우리에게는 사람 인(人)의 글자가 표시 하듯 떠받침이 필요하기 마련인 것이니 '버팀목'이 되어주는 귀중한 교훈들 즉 금언을 나도 좌우지 명으로 삼으며 살아 왔다. 어려서는 부모님으로부터,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으로부터, 선배들로부터, 값진 책을 읽음으로써 선현으로부터 또는 영적 독서를 통하여 얻어진 주옥같은 이들 교훈을 몸 에 부침으로써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인 인생을 걸어오면서 나는 견디어낼 힘을 얻었고, 나에게 어떤 지혜를 심어 주었으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좀 더 뜻있게 그리고 평화 안에 살 수 있게 해 주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나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서서 삶을 되돌아볼 때 좀 더 잘 했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점들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조용히 명상에 잠겨 본다. 내가 걸어온 항로에서 신호등이 되어 주었으며 또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행진곡이 되어준 금언 중에서 몇 가지를 간추려 적어 보았다.

1. 소년들이여, 큰 뜻을 품으라
(Boys be ambitious!)

아마도 가장 오래도록 내 기억에 남아 있는 가르침이다. 일본의 명치유신(Meiji Restoration 1868년에 시작된) 초기 1876년에 일본의 농업의 개량과 발전을 위하여 일본정부의 초청으로 북해도(Hokkaido) 대학에 농학부를 설립하여 일본의 경제 및 과학 발전에 크게 공헌한 William Smith Clark박사가 임기를 마치고 일본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남긴 유명한 교훈으로 북해도 제국대학 교정에 있는 그의 동상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다. 작별 강의를 마치고 학생들에게 외친 말씀 - "대지(大志)를 품어라. 재산이나 자기 권력의 확대, 덧없는 명성을 피하기 전에 인간으로서 마땅한 덕을 함양 하시오." (Be ambitious not for money or for selfish self-aggrandizement, not for that evanescent thing which man call fame. Be ambitious for the attainment of all that a man ought to be.) 일본의 정식 교과서를 통하여 전체 학생들에게 가르쳐 온 교훈이었다.

Beethoven이 동생 Carl에게 남긴 Heiligenstadt 유서에서도 그는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 "자녀들에게 덕행이 중요함을 가르치시오. 돈이 아니라 덕행을 갖추 때에만 그들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니. 나의 경험을 통하여 이 말을 하오. 나는 오직 내가 예술을 사랑하고 덕성을 갖추었던 덕으로 나에게 그렇게도 중요한 청력을 잃은 비참한 상태에서 나를 지탱해 주어 자살하지 않고 견디어 나가게 해 준 것이오." (empfiehlt euren Kindern Tugend, sie nur allein kann glücklich machen, nicht Geld, ich spreche aus Erfahrung, sie war es, die mich selbst im Elende gehoben, ihr danke ich nebst meiner Kunst, dass ich durch keinen Selbstmord mein Leben endigte.)

2. 불후의 명성
(The man is immortal)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사나이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리라." (일본 말로 torawa sisite kawawo nokosu, hitowa sisite nawo nokosan).

어려서 배운 격언으로서 왜인지 생생하게 내 마음속에 메아리치고 있는 귀중한 말씀이다. "사람의 진가는 죽어서 관 뚜껑을 닫을 때 알게 된다"고 하였다. 엄숙한 자세로 음미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Italia의 Firenze를 처음 찾아가 아름다운 대성당 (Florence Cathedral)을 구경 했을 때 그 유명한 두오모 (The Dome)를 포함한 대성당의 건축을 140년이나 걸려 4 대(four generations) 건축가의 손을 거쳐서 지어 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인간의 열정은 불멸이라는 사실을 거기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인간에게는 항상 내가 이루지 못했던 과제를 후손을 통하여 이를 희망 안에 살 수 있으니 감사할 일이다.

3. 천조 자조지자(天助自助之者).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불로(不勞)소득을 피하는 사람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이다. 세상을 지나오며 살펴 보건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각자 예외없이 남 보다 특별한 어떤 재주 하나는 꼭 구비하고 있음을 보아 왔다. 공자(孔子)의 교훈이기도 하지만 부지런히 또 정직하게 재능을 노력할 때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고 믿는다. 사회가 어지럽고 불안해질 때 불로소득, 일확천금을 노리는 심리가 팽배해짐을 내가 뒤로하고 떠나온 그 당시의 우리 조국 안에서 자주 보았던 것 같다.

4. 자업자득(自業自得)

인과응보(因果應報)라는 말도 있지만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기 마련이다. 우리말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한다. 노력없이 얻어지는 일은 없다. 어떤 일에서든 결과에는 원인이 반드시 있는 법. 어떤 일의 결과가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할 때에는 먼저 내가 무엇을 잘 못했나 부터 생각해야 하겠고 결국 모든 것은 '내 탓이요, 나의 큰 탓이로 소이다'하며 겸손되이 반아드린다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Mea Culpa' 얼마 전에 세상에 알려진 책 - "물은 답을 알고 있다"에 보면 인체의 75%를 차지하는 물(water)은 결정체를 이루고 있어 그 모양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르고 마음에 사람이 없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 차 있을 때에는 뾰족하게 모가 난 모양을 취하며 반대로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에 젖어 있을 때에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결정체의 둥근 모양을 갖추게 됨으로 신체내의 모든 세포에게 미치는 영향이 관이하게 달라진다는 이야기이다.

5. 인간 만사 새옹지마
(人間萬事 塞翁之馬)

전국시대 중국 고사에서 흘러나온 이 격언을 더욱 내 몸 가까이 깊이 음미하며 살아오고 있다. "한때의 이(利)가 장래에 해(害)가 되기도 하고 화(禍)가 복(福)이 되기도 함"을 뜻하는 말인데 참으로 어떤 사람도 자기의 앞날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사실 선현 공자(孔子)도 모든 인간사를 하늘(天)의 섭리에 귀차 시키지 않았든가. 나약한 인간, '해변의 모래알 하나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여찌 신(神)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까.

우리는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가운데 살아간다. 내 입에 달거나 쓰거나,

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차피 우여곡절(vicissitudes)을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일진대 내 앞에 놓이는 과제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만이 내 몫이 아닐까.

6. 급하면 돌아서 가라.
(isogaba maware)

이것도 내가 어려서부터 마음속 깊이 간직해온 격언이다. 중요한 일 일수록 심사숙고하고 용의주도하게 결정해야 한다. 속단은 금물이다. 서두르다가는 실수하기 쉽다. 한번 저지른 큰 실수는 돌이키기 어렵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면 우선 시간에 여유를 두어 다시 꼼꼼히 생각해보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때로는 우유부단 한 인물로 낙인찍힐 때도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지금은 '스피드 시대'라고 한다. 스피드 만능! 무엇이나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부터 서둘러 대니 커피잔도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도 많다. 컴퓨터 만능, 손가락 하나로 처리해 버리는 시대, 요리(food)도 순간에 해치우는 속도 지상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과연 얼마나 만족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나는 묘한 인연으로 1955년에서 1958년까지 만 3년 동안 로스앤젤스와 뉴욕시에서 공부한 일이 있었다. 그 당시의 비행기는 프로펠라로 가는 시대. 급한 소식은 전보(telegram)로 이루어 가던 시대였다. 도둑이 없었고 집이나 자동차나 어디를 가도 잠글 필요가 없었다. 길에서 스쳐가게 되는 모르는 사람끼리도 서로 미소를 교환하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얼굴에는 평화가 넘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 문명의 이기(利器)가 범람하는 시기에 격심한 경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피로에 찌들어있고 여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니 얼굴에서는 미소 지음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 미국사람들 안에서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 '느리게 가기 운동' (slow movement campaign)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즉 지금 현대인들은 '빨리빨리 병'에 걸려 있어 시간에 굶주리고 있으며 이 때문에 건강,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 질서가 위협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펴 나가고 있다. 변호사인 콘(Edgar S. Cohn)씨가 이 운동의 지도자이다. 시간 기근(time famine)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블랙베리(blackberry) 끄기, 집에서 시간 들여 맛있는 음식 만들기, 아름다운 정원 가꾸기, 그리고 충분한 걷기 운동 등을 강력히 장려 하자는 것이다.

7. 그럴 수도 있겠네

몇 해 전에 어떤 내과 의사가 쓴 글을 보고 크게 마음에 닿아 옴을 느낀 일이 있었다. 80대 노인 부부가 찾아 왔는데 대단히 다정스럽게 보였다. 60년 이상이나 함께 해로 해 온 부부인데 시중 일관 서로 손을 잡고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나 곱게 보였다고 한다. 그토록 오래 함께 사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좋으시냐고 물었더니 "잡고 살면 무엇이 문제 이겠느냐" 함에 그 비결을 묻자 모든 걸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면 화가 가라앉게 돼 있다고 하드란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 드리는 참 지혜가 바로 이 한마디에 담겨 있지 않을까. 서로 성격이 다르니 뭐니 하여 괴로워 할 것이 아니라 저 쪽에서 서서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 마음의 '안경'을 써 버리면 얼마나 쉽게 해결 될 것일까 하고 나도 생각해 본다.

8. 두 발자국 뒤로 물러서 다시 내

은하수

이원택(71, 남가주)

아득한 그 옛날 두고 온 옛고향
그리운 남정네 애타는 가시내
조마조마 연인들 이따금씩 합치네

넘치는 내 사내 보드란 내 여인
축복의 중앙로 천사의 마중길
물려오는 질투심 풀어헤친 내 사랑

튼실한 태양인 포근한 숲 요정
우거진 솔밭길 떠오른 하늘 땅
기쁜 우리 예쁜 강
즐거운 날 비추리

다보시오.
어떤 경우에든지 뭔가 내 마음에 합당치 않다 하여 우격다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는 먼저 조용히 두 발자국 뒤로 물러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다. 거리를 두고 다시 볼 때 너그러운 마음이 솟아오를 것이다.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여유를 두고 두 번, 세 번 보고 또 다시 보면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 할 것이다.

9. 그저 웃고 넘기시오
(just grin and bear it.)

어찌다가 나의 기억에 남게 된 말인데 50여 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미국 동료들에게서 처음 배운 말이다. 영화 대사에서도 자주 들었던 생각이 난다.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면 그것은 이미 그 사람 스스로가 평화롭지 못함을 말해 준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났다 하여도 그저 가볍게 웃어 넘기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얼굴에 미소 짓기란 쉽지 않다. 늘 기쁨과 감사 안에 살지 못하면 웃음은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 가겠기 때문이다.

10. 질병은 자연의 힘으로 치유된다. 의술은 다만 이것을 돕는 것뿐이다. (Natura sanat, Medicus curat.)

옛날에 유명했던 일본의 내과 총서- '내과 질료의 실제' (naika sinryono jissai)의 첫머리에 실려 있던 이 말은 내가 지금 까지 60여년에 걸치는 내과 전문의로서의 삶에서 으뜸가는 좌우지 명으로 삼아 오고 있는 명언이다. 의학도로서의 삶을 통하여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깊이 탐구하면 할수록 경악할 뿐이며 오직 조물주의 권능 앞에 찬미와 영광을 돌려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의학박사 학위논문은 혈액학 중에서 응고학(coagulology)으로 하였는데 응고 기전에 있어 전에는 몰랐던 넷째 단계(fourth stage) 즉 섬유소 용해 기전(fibrinolytic process; 그 안에는 또 plasminogen activation process 와 antiplasmin factor들이 미묘한 balance를 이루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한낱 별거벗은 의학도로서 경탄을 금할 길이 없었다.

인체는 완전무결하게 만들어져 있으니 100년 혹은 그 이상을 넉넉히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사회생활을 통하여 불러들이는 수다한 기질적 또는 정신적으로 해로운 요인들로 인하여 많은 질병과 사고들을 초래함으로써 수명을 단축하게 하는 현상을 자초하는 불행을 불러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소록도로 가는 길

천 양 곡(69, 시카고)

일을 파타임으로 줄인 후 시간 여유가 있어 지난 몇 년 동안 가보고 싶은 곳을 찾아다니고 있다. 금년 여름에는 Memphis에 있는 Grace Land에 들렀다. 젊은 시절 나의 우상이었던 엘비스가 살던 집, 그가 묻혀있는 정원을 거닐며 다시 한 번 세월의 무상함을 음미해 보았다. 미국 생활 37년이란 세월이 어찌면 엘비스의 노래 'My Way'처럼 삶에 대한 자만, 과오, 후회, 변명의 연속같이 느껴진다. 최근엔 한국의 남도 끝 부분에 위치한 소록도를 다녀왔다. 어렸을 때 본 눈썹 빠지고 손 발 얼굴이 문드러져 괴물 같은 사람들이 살던 곳을 찾아보고 싶었던 것이다. 또한 나병 환자들의 애환과 고통, 소외되고 어두웠던 그들을 자신의 몸처럼 보살피고 간 사람들의 박애정신이 깃들어 있는 섬의 체취도 맡아보고 싶었다.

소록도로 내려가며 아내의 태가 묻혀있는 공주, 나의 태가 묻힌 익산을 지나칠 때 어릴 적 기억이 되살아났다. 찌는 듯한 1950년 여름 우리 집 식구들은 달구지에 세간 살림을 싣고 피난을 떠났다. 마침 후퇴하던 국군 장병들이 북쪽으로 가는 우리를(피난처가 당시 살고 있던 곳의 북쪽 방향) 빨갱이 동조자로 몰아 길 한쪽에 세워놓고 총살형에 처하려고 했다. 그때 선전계서 허대에 숨긴 현금, 시계, 귀중품 등을 주고 간신히 죽음을 면했다. 반나절 뒤 따발총을 둘러맨 인민군들을 처음 만났다. 20세 미만의 앳된 모습이었는데 우리한테 뭐 도와줄게 없느냐며 아주 친절했다. 싸움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승자와 패자의 태도였다. 그 후 석 달이 지나 전황이 뒤바뀌어 패자 신세가 된 인민군은 동쪽을 무참히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유전자보다 주위 환경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정신의학적 설명이 되는 말이다.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정음의 내장사와 백양사도 둘러보았다. 푸르던 잎들이 연분홍색으로 변해 바람에 나불거리며 마지막 타오를 단풍의 찬란한 멋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정녕 기쁜 이별을 말해 주는 걸까? 걸으면서 이미 땅에 떨어진 낙엽들을 밟지 않으려고 신경을 썼다. 점심은 담양에서 4대째 내려오는 원조 떡갈비 집에서 떡모양 같은 갈비를 푸짐하게 먹고 2 시간 뒤 소록도에 닿았다.

웨딩마치에 맞춰 손잡고 걸어가는 신랑 신부의 행복한 길이 있는가 하면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의 비참한 길도 있다. 누구나 행운과 영광의 길을 가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듯 너나 나나 끝이 어딘줄 모르는 인생길을 가야 한다. 먼저 걸어간 사람도 뒤따라 올 사람도 긴 세월을 하나의 잣대 위에 올려놓고 보면 그리움과 외로움이 교차되는 길이다. 나병환자가 소록도로 걸어갔던 길은 죽기보다 삶은 길이었다. 핏방울 같은 땀이 땅을 적셔도 뒤돌아 보지 않고 묵묵히 걸었던 고통과 애환의 길이었다. 문둥병 시인 한하운 시에 잘 나타나 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숨 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걷는 길/신을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개 없다/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중략) --- 손가락 한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위에 떨어진다/이 뼈 한마디 살 한 점/하얀 봉대로 싸서 주머니에 넣어둔다/날이 따뜻해지면/남산 어느 양지바른터를 잡아서/깊이깊이 땅 파고 묻어



했다. 이렇게 문둥병 시인 한하운님 시에 잘 나타나 있다.

섬 모양이 어린 사슴 같다는 소록도,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지 않게 나병 환자들을 수용했던 천형의 땅이었다. 육지에서 1km도 못 미치지만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의 바다 건너 저쪽 물으로 가고 싶다는 환자들의 절규에 젖은 인간 존엄성이 사라진 저주받은 섬이었다. 나병은 말초신경과 피부조직이 썩어 문드러져 변형되는 외부 모습 때문에 옛날부터 하늘이 내려주는 형벌로 알아 가족과 사회로부터 멀리 떼어 놓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세종대왕 때 처음으로 나병 환자를 격리하기 시작했고 일제 때는 강제로 끌어들여 소록도에 감금하여 죄처럼 다루었다. 소록도 병원은 1916년 일본 총독부에 의해 설립되어 해방 후 국립 소록도 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어 지금까지 남아 있다. 해안을 끼고 도는 기기묘묘한 바위, 부서지는 파도로 절경을 이루는 소록도, 지금은 나병환자는 별로 없고 이제 관광명소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고 들었다.

나병은 1875년 세균 학자였던 Hansen이 나균을 발견한 이래 한센 병이라 알려졌고, 또 코, 눈, 얼굴이 비틀어지고 문드러졌다 하여 문둥병으로도 불린다. 나병은 구약 성서에서 인용되듯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고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은 병이었다. 인류에게 질병은 삶의 한 부분인데 세상에서 나병만큼 잔인하게 다루어진 질병도 없었다. Bacillus Leprae라는 균에 의해 말초신경이 파괴되어 지각마비, 피진(Rash), 손발 등 체형의 변화가 오는 병이다. 한센에 의해 나병이 유전이나 죄를 지어 벌 받은 병이 아닌 만성전염병으로 확인되었지만 무서운 병이란 예로부터 내려오는 고정관념 때문에 지금도 나병 환자를 멸시하며 피하려고 한다.

〈추모비〉 국립 소록도병원 쪽으로 가는 길목에 한 추모비가 보였다. 해방을 맞자 소록도 나병환자들은 자치권을 요구했는데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84명의 환자들이 처형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그들이 죽임을 당했던 장소에 그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2002년 늦게나마 비를 세운 것이다.

〈수탄장〉 치료약이 없었을 때는 나병환자들은 말초신경의 손상 때문에 눈이 폭 파이고 콧날은 간데없고 입은 삐뚤어져 얼굴은 사자 형상이 되고 손발은 진물이 나서 오래되면 뼈, 피부, 근육이 썩어 떨어진다. 보통 환자의 고름, 콧물, 침같은 체액으로 감염되며 오랫동안 함께 생활해온 가족 내에 많이 있다. 환자들이 사용하는 물건이나 기구들로 부터의 간접 감염

은 거의 없고 DDS, 리팜마신같은 치료약이 나와 감염의 위험은 거의 사라졌는데도 소록도에서는 1970년까지 환자와 환자식들을 격리하여 살게 했다. 한 달에 한 번씩 환자와 가족이 만나는 날에는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눈인사만 주고받아야 했던 탄식의 장소를 그들은 수탄장이라 불렀다.

〈소록도 공원〉 1936년 일제 강점기에 환자들이 산책하던 곳을 공원으로 만들었다. 당시 환자들을 동원하여 3년 이상 걸려 여러 가지 나무, 화초를 심고 잔디 깔고 바윗돌을 날아와 조명이 빼어나게 꾸몄다. 공원을 걸으며 구석구석마다 환자들의 피담, 애환, 분노의 발자취로 젖어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일본 원장은 공원 안에 자신의 동상을 세워놓고 환자들로 하여금 강제로 감사 참배를 시켰다 한다. 정신과적으로 보면 그 원장은 자애성 성격장애나 과대망상 혹은 조증증세를 가진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결국 그는 분개한 환자의 손에 살해되고 동상은 태평양 전쟁의 물자로 수거해 갔다. 공원 안에는 성모 마리아, 예수님 상, 한하운의 '보리피리' 그리고 '나병은 낫는다'란 글씨가 새긴 구라 탑이 높게 서 있었다. 구라 탑은 나병환자들을 구한다는 의미로 탑 벽에는 박애정신을 실천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감금실과 검시실〉 공원 입구에 감금실과 검시실이 눈에 띄었다. 고분고분 하지 않은 환자들을 가두어 벌주고 사망 시 시체해부를 했던 곳이었다. 또한 나병환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거세를 단행했던 단종대의 서글픈 이야기도 적혀 있었다. 수술대 위에서 장래 손자를 보겠다는 어머님 모습이 가물거려 자신의 청춘을 통곡한다는 젊은 남자 환자의 시 구절은 너무나 애절했다. 환자들은 자신들이 세 번 죽는데 나병에 걸렸을 때가 첫째, 해부를 당할 때가 둘째, 셋째는 화장할 때라 생각했다

21세기의 화두는 단연 정신심리학 용어인 empathy(감정이입)이라 말할 수 있다. Empathy는 타인의 문제나 감정을 자신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도덕적 정서로서 이제 정신 영역뿐 아니라 정치, 종교, 과학, 문화, 예술 분야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박애, 봉사, 희생, 기부 같은 humanistic 행동의 근간인 empathy없는 선한 일을 이루기가 힘든 것이다. 그 empathy는 가톨릭교황도 한국 총리도 이곳을 다녀가게 했고 필자 또한 비슷한 마음가짐으로 소록도에 조그만 발자취를 남기고 왔다.

우리는 타인의 불행을 자기 자신의 행복의 잣대로 삼으려는 인간 속성 때문에 나병환자를 멸시하고 멀리했다. 그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소록도를 떠나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순천만의 생체환경 연구지역에 들려 갯벌로 둘러싸인 갈대밭을 걸었다. 마침 일 년에 한 번씩 열리는 축제 때문에 그 곳은 사람들의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소록도에는 아직까지 숙박이 허용되지 않아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순천 낙양민속촌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초가집에서 자본지가 60년이 넘어 감개무량했다.

아침을 순 한국식으로 들고 김의 특산지, PGA골퍼로 활약 중인 최경주씨 고향인 완도를 휘휘 둘러보고 진도로 향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께서 13척의 배를 가지고 몇 백척의 왜선을 격파한 명량대첩의 울돌목을 찾

았다. 울돌목은 바다의 폭이 좁아져 바다 물살이 개울물같이 빨리 지나가는 곳인데 장군께서 이를 이용하여 왜선을 이곳으로 유인한 후 물살시킨 것이다. 전라 우수영 본관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호남이 없었더라면 조선도 없었을 것이다."란 이순신 장군의 필체가 세워져 있었다. 진도는 또한 한국 토종 진돗개의 원산지다. 미국 경찰 당국에서도 진돗개의 영리함, 충성심을 높이 사서 경찰견으로 훈련시키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도로 주변에는 무화과 나무들이 즐지어 서 있었다. 꽃이 없는 나무가 아니라 나뭇잎이 너무 커서 꽃이 보이지 않아 무화과란 이름이 붙었고 무화가 과실 맛도 달콤하게 맛이 괜찮았다. 한국 최초로 세계 자동차 경주가 열렸던 목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은 진짜 회 음식으로 포식했다. 식당 주인에 의하면 며칠간 계속된 시합경기에 무려 수만 인파가 몰려들어 재미 좀 보았다고 한다. 식사 후 삼호 조선소 언덕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니 저 멀리 새로 꾸민 자동차 경주장의 크기가 미국의 Indy 500 경기장과 별 손색이 없는 것 같았다.

계속 서울 쪽으로 올라와 부안 변산만에 있는 대명 리조트 호텔에 숙식을 정했다. 이런 시골에 현대식 호텔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듣는 말로는 변산반도가 서해안에서 가장 경치 좋은 곳의 하나라 한다. 부안 지역에는 뽕나무 재배가 많아 이곳의 특산물인 오디와인(뽕술)을 마시고 민속촌 초가집에서 설치된 잠을 폭신한 침대에 푹 잤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해변가 오솔길을 따라 신선한 바다 바람을 마시며 끝없이 펼쳐진 서해 바다를 바라보았다.

조금 더 가니 20마일이 넘는 독을 만들어 바다의 일부를 막아버린 새만금 방조제가 나왔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란다. 금년 봄에 준공식을 했었는데 아직도 곳곳에 불도저 소리가 요란했다. 땅이 좁아 한이 진 우리나라가 바다의 일부를 육지로 만들어



영토를 넓히려는 목적이란다. 그러나 만들어진 땅에 무엇을 할 건지 결정하지 못해 아직까지 바닷물을 빼지 않고 있다. 조물주께서 만드신 천연의 갯벌이 생명줄인 무수한 동식물들은 어디로 갈건지 미 환경협회 회원인 필자의 머리는 무겁기만 했다.

점심은 군산 어항에 들려 이 지방 특산물인 꽃게 요리, 꽃게탕, 꽃게찜을 먹었다. 살아 있을 땐 거무스름한데 뜨거워 물로 요리를 하면 빨갛게 변해 꽃게란다. 겸사해서 동생들 즐려고 꽃게 한 상자도 샀다.

우리 조국은 지난 40년 동안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다. 세계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유래가 없는 일로 기네스북에 남을 만하다. 이번 여행은 그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했던 현대 중공업 사장을 역임한 벗과 동행했다. 손수 차까지 내주고 길동무 해준 벗에게 감사를 표하며 글을 마친다.

이관호(46)선생님을 추모하며

-포토맥 지역에 거주하시던 이관호(46)동문께서 지난 1월 9일 별세했습니다.

이관호 선생님은 1946년에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 하셨습니다. 1952년에 도미 하시어 Huntington, WV에서 정형외과 수련을 마치고 1957년에 귀국 하셨습니다.

이 선생님을 제가 처음 만나 본 것은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실에 강사로 계실 때 1959년이었습니다. 저의 공군 군의관 시절 의무감실에서 직속상관이었던 고 이기혁 선배님의 소개로 만나 뵈었고 그날 대학병원 앞 원남동 로터리 북쪽 끝에 있었던 '유명한' 빈대떡 소주 집(bar)에서 가졌던 즐거운 추억은 늘 저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미국에 와서는 선생님이 Beckley, WV에 계실 때 저는 Canton, Ohio에서 내과 진료를 하고 있을 무렵 1982년에 찾아가 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여행을 즐기셨고 구라파를 비롯한 세계 각지 가보지 않은곳이 없었습니다. 댁에 가면 밤마다 잠식하고 있는 각 나라의 고유한 기념품들이 벽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또 이태리,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부쳐 오신 휘황찬란한 chandelier도 놀라움 안에 감상하던 일이 생각납니다. 선생님은 부지런 하시고 골프를 즐기셨습니다. 출근 하시기전 아침 7시에 나가서 9홀 골프를 함께 한 일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선생님은 Beckley에서 25년간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지역 주민을 위한 헌신적 봉사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영성적 면에서도 일찌기 신앙에 귀의하셨고 Beckley에서 Knights of Columbus Fourth degree 기사로서 봉사 활동을 하셨습니다. 1992년에 은퇴하신 후로는 조지타운 포토맥 강변 저택에서 유유자적 하시면서 수집하여 놓은 여행 기념품과 예술작품들을 회고하고 체계화하면서 시간을 즐기심을 보았습니다. 제가 방문하면 언제나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좀 더 자주 찾아가 뵈지 못하였던 점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선생님은 서예에도 조예가 깊으셨으며 댁의 입구에 장식하여 놓은 드물 정도의 명필인 친필의 한시(漢詩)를 볼 때 마다 감탄하여 마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년간은 연부조직 악성 종양에 대한 연이은 치료를 태연히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감수하셨습니다.

이제 어찌 할 수 없는 인생의 이치에 따라 이 세상에서의 활약을 접으시고 천상분향을 향하여 먼 길을 먼저 떠나신 것 입니다. 천국에 하루빨리 이르시도록 저희 모두 열심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고이 편안히 가시옵소서.

부족한 후배 나수섭(50)이 올립니다.

원고모집안내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동창회지 시계탑을 보다 품격있게 발행하기 위해서는 동문여러분의 각별한 협조가 필요하오니 아래 내용에 맞는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하는 원고 내용

- 동기 및 동문 동정, 지부소식, 제언과 비평, 수필, 산문, 기행문, 서간문, 독후감, 시, 농담골목 유모어 자녀들의 자랑 또는 소식,
- 특히 전공과목에 대한 새로운 의학 소식 등을 환영합니다.
- 원고는 가급적 1면이 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종교적인 내용과 다른 신문이나 간행물에 이미 게재된 글은 사양합니다.

보내시는 방법 및 보내실 곳

- 학년과 성명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관계되는 사진 그림 첨부해주시요.
- 원고는 한글이나 Word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혹은 CD 는 환영합니다.

Damian B. Kim, M.D.
141-30 33rd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4
Tel: (718) 460-5190 E-mail: dkim68@nyc.rr.com

원치규(58) 박사 영전에

치규야, 치규야,

언제나 부르면 대답할 것으로 알았는데, 언제든 보고 싶으면 불 줄 알았는데 또 언제든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어찌 그렇게 갑자기 아무 대답 없이 가 버리는 거야. 이렇게 늦게 와서 영영 못 만나보니 죄스럽기 그지없구나. 그러나 할 수 없었어, 영영 못 만나 불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

돌이켜 보니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이 언제든가 생각해 봤어. 1951년 1월 1일이었어. 그때 너는 형남 식구와 함께 부산에 이미 피난 와 있었고, 나는 1월 1일 아침에 남하하여 부산 초량에서 처음 형남과 너를 만났어. 그로부터 거의 매일 24시간 동안 같이 살고 같이 지내다시피 했지. 그때부터 초량, 보신동 등에서 1953년까지 부산에 살았고, 서울에 환향해서는 이화동에서 살았지. 그 뒤 학교에도 같이 가고, 다방에도 같이 가고, 술도 같이 마셨고, 재시험도 같이 치고, 형남한테 기압도 같이 받았지 않아. 저녁때 내가 늦게 들어오면 내가 대문을 열어주고, 내가 늦게 들어오면 내가 문을 열어주었지 않아. 학교 갈 때 지각도 같이 하고, 결석도 같이하고, 극장 구경도, 당구치는 것도 같이 했지 않아. 술도 자주 같이 마셨지 않아. 형남한테 기압 받을 때도 같이 받으면 전혀 싫거나 무섭지 않더러구...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군대 갈 때까지 졸공 같이 지냈지. 장여사를 만날 때까지..

그렇게도 긴 세월을 오래 지냈는데도 그렇다할 싸움 한번 못한 것이 기억나지. 그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그렇게도 대인 관계에 능숙한 탓이야. 그때그때를 능숙하게 넘겨서 상대방을 잘 요리해서 위기를 넘기기 때문이었어. 나는 언제나 너의 그러한 기교야 말로 놀라고도 감탄했어. 상대방의 기분을 잘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서하는 그 기교야 말로 누구도 본받을 수 없는 재주였어. 그렇게도 오랫동안 내가 제 욕심을 부리거나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나는 항상 그것을 느끼면서 본받으려 해도 안 돼. 우리가 항상 세사사를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또 결론짓고 한때 거의 한 번도 의견이 틀려서 다툰 적도 없었던 것 같아. 대개 결론은 90% 이상이 서로 맞는 것이었어.

그동안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살았어도 나는 항상 내 처와 옛날이야기처럼 우리 두 사람의 이야기를 했어 그럴 때마다 내 처도 두 사람의 사이가 그렇게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동안 닥터 원의 이야기를 듣고 닥터 원의 흉내를 내가 이야기하면 언제나 들어서 웃고 또 웃고 지내곤 해. 그러다보면 닥터 원은 정말 코미디언이라고 할 수 있어 같은 말이라도 닥터 원이 읊기면 우습게 들리고 재미있게 들리면 그것이 코미디언이지 뭐야.

돌이켜 술 마시면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세사사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모두 우리로서는 가장 옳은 결론이고 최선의 해결론이었어. 또 둘 다 맞는 결론이었어. 지난 기십 년간 같이 살 때나 떨어져 살 때나 항상 기억에 남고 좋은 경험으로 소중한 여기던 것이 종말이 온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언제나 그런 날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언젠가는 다시 만나 또 웃음의 꽃을 피울 것으로 생각했지.

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우리 둘이 서로 약속하기를 이제 곧 나아가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기쁘게 지내보자고 했었지. 닥터 원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 서로 교대로 전화하자고 약속했었지. 그러면 그림던 옛날이 다시 돌아올 것으로 알았소. 그러던 것이 이렇게 될 줄을 상상도 못했으니... 그렇게도 과거가 새삼스럽게 간절하게 그림소.

오늘 이제 미세스 원, 선주, 선희 내외, 선영 모두들 만나니 닥터 원을 직접 보고 대화하는 것 같소. 또 나와 치규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이렇게도 많고 가슴에 닿으니 치규나 그 가족들의 스토리야 얼마나 많고 귀중하고 또 그들의 심금을 울리겠소이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소.

부디 우리 모두가 그와의 아름답고 귀중한 경험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서 앞날을 보내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기원하기는 미세스 원, 선주, 선희, 선영 가족들 앞으로 계속 우리 가족들의 유대를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더욱 가까이 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원박사의 유명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깊이 느끼오. 이운순(58) 드림

편집위원회 회의 초록

이번 시계탑 편집모임은 12월 15일 수요일 저녁 6시에 후러싱에 있는 장원루에서 있었다.

총 여덟사람이 모였다. 들어온 원고들의 교정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그 양이 여느때 보다 훨씬 적어 모두 우려를 표했다. 특별한 안건은 없었으며 전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원고가 많이 들어오게 할수 있을까 하는것과, 어떻게 하면 질을 향상 시킬수 있을까 하는것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는 이번에도 없었다. 새해 건강할것을 빌면서 9시반경에 헤어졌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172-10 45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8
e-mail:snucmaa@yahoo.com
Tel: (718) 888-2622 / Fax: (718) 888-2608